

# “뚝뚝한 한채, 투기할 기회 만들어 잘못된 가격 정상화가 정책목표”

李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전문가·시민 등 모여 193분 토론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시민들이 모여 총 193분 동안 주택 공급 확대, 대출,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 13분에 종료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1시 40분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면서 예정보다 93분 더 진행됐다.

우선 전문가들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고, 조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 세 부담이 적정하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쟁점이라며 “조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 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실거주자에게만 종합부동산 세 혜택을 줄 경우 서울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를 거주 여부 관계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거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최근 매입자와 장기 보유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구멍 없이 강력해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로 새로운 공급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보다는 이미 계획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병목을 해소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입주부터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복원하고 정비 사업과 민간임대, 비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됐다. 이주비가 부족해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마트규제 완화, 골목상권 현실 외면”

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추진에  
수퍼마켓 연합회 “보호 대책이 먼저”  
시민단체 “새벽배송,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충분한 보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도 온라인 배송에 한해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의무휴업 자율화를 골자로 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없는 규제 완화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사과가 놓여 있다. /뉴시스

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은 중소수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중소유통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질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규탄 성명이 나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는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2년 도입된 현행 규제가 온·오프라인으로 재편된 유통시장 환경과 맞지 않아 오프라인 유통 경쟁력을 떨어뜨

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공휴일의 무휴업 규제를 받아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막혀 있다. 반면 쿠팡 등 이커머스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은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 기준점 성장률은 약 5%포인트 하락했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도 5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11년 9%에서 지난해 7%로 줄었고,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도 2011년의 10분의 1 수준인 867억 원까지 감소했다.

기존 영업 규제가 당초 목적인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규제 완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부산·서울 서초·동대문 등에서는 대형마트 매출이 최대 7.9% 증가했을 뿐 아니라 대구 골목상권 매출은 15.39%, 서울 전통시장 매출은 12.79% 늘어 지역상권 전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



# 韓 기술로 美 조선업 재건 돕는다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1500억불 협력투자 빠르게 진행”

한국의 세계적인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 AI·로봇 원천기술을 결합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끌 전진기지가 워싱턴 D.C. 현지에 닿을 울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의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국 상무 장관을 비롯해 미 해군부 장관 대행,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및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대형 3사 대표 등 130여 명의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환영사에서 “KUSPC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조선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이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0억불에 이르는 조선협력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양국은 동반성장을 위한 ‘Team Korea’ 구축, 공급망, 인력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년간 총 1200억 원(약 8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알루미늄 자율용접, 무인 함정 제어 등 8대 차세대 국제공동 R&D 과제를 미국 주요 대학·기업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종건 KUSPC 센터장은 “한-미 정부와 조선소, 대학·연구기관, 투자를 하나로 잇는 허브로서 미국 조선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조선소 대상 생산성 컨설팅, 한-미 공동 기술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미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KUSPC는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66억 원)을 시작으로 미 현지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국내 생산 분야 퇴직 전문기술을 활용한 미국 야드 공정 개선 컨설팅과 기술 자력 인증 프로그램 등 미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기술경쟁, 중대 전환점에 있어…국회 협조 중요” /사진 뉴시스  
▲국힘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헌재 “인정 못 해” 각하

▲김민석 “예비경선 끝나면 신천지 등 정리해 말할 것”  
▲김건희 상고심 선고 무기한 연기…대법,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순직 심의에 첫 국민 참여 추진…특별성과 공무원 포상  
▲합수분,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넓힌다

## 국민성장펀드 활용 투자 확대

금융위·산업부, 기업 간담회 개최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후속조치  
정·제련 등 전주기 걸쳐 금융 지원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12대 첨단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부터 정·제련, 소재 가공, 재자원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해외개발·가공·재자원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한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

장펀드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방산,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펀드로, 핵심광물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해외자원 조사와 특별용자, 재자원화 설비 투자, 원료 비축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히토류 영구자석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와 정·제련, 소재 가공,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를 대상으로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가공, 재자원화 프로

트 투자 계획을 공유하며 글로벌 경쟁 심화와 설비·기술 확보, 원료 수급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가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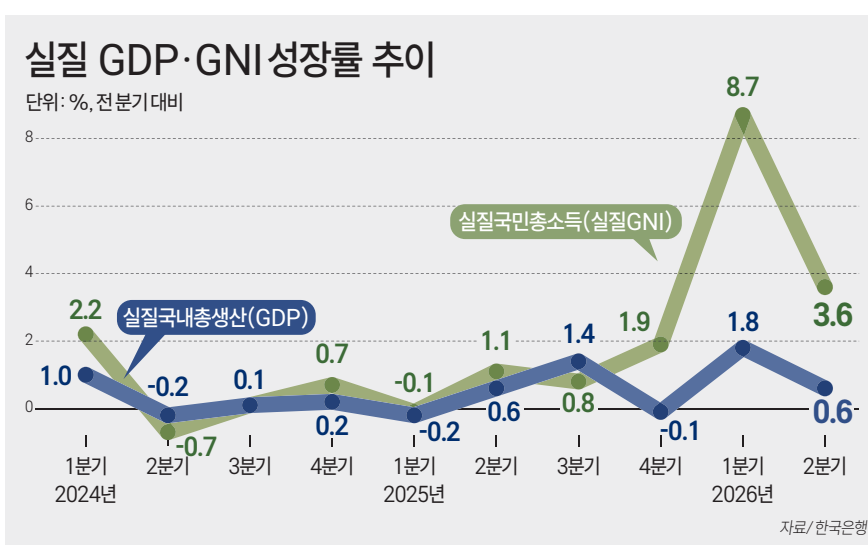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와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해외자원 개발부터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까지 사업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재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도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2분기 한국경제 0.6% 성장

한국은행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  
반도체 수출 중심 성장세 유지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 전 분기보다 0.6% 성장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분기 1.8%보다 성장 속도는 낮아졌지만 반도체 수출과 민간소비·서비스업이 건설 부진을 매웠다.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은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보다 15.6% 뛰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7%로 1분기 3.8%보다 0.1%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성장 동력은 내수와 수출로 양분됐다. 내수와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에 각각 0.3%p씩 기여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부문이 성장률을 1.0%p 끌어올린 반면 정부 부문은 0.3%p 낮췄다. 정부소비가 증가했지만 정부 부문의 투자 등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 증가율은 1분기 0.6%보다 낮아졌지만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어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1분기 5.9%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수입은 0.8% 늘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순수출은 성장률을 0.3%p 높였다.

투자는 부문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토목건설이 줄면서 건설투자는 0.2% 감소해 1분기 1.4%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늘면서 설비투자는 0.2% 증가했지만 1분기 6.6%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3% 늘어 2012년 1분기 5.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은 도매·소매·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1.1% 성장했다.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는 0.6%p로 2분기 전체 성장률과 같았다. 세부적으로 정보통신업이 3.8%, 운수업이 2.0%, 금융·보험업이 1.8% 성장했다.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계와 기계·장비 호조에 1.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성장해 전체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반면 토목건설 부진으로 건설업은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고, 재래업과 어업이 줄면서 농림어업도 7.1%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 역시 1.3% 줄었다.

실질 GDI는 전 분기보다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3.0%p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5.6%로 1988년 1분기 16.4% 이후 가장 높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청년층 경제활동·고용률, 2004년 이후 최대폭 하락

데이터처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률 43.8%… 전년비 2.4%p ↓

국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2000년대 중반 이래 22년 사이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전년동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51.5%에서 2023년 50.5%, 2024년 50.3%까지 내려온 바 있다. 이어 작년에는 49.5%, 올해 47.2% 등 2년째 50% 선을 하회했다. 참가율 절대치 역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47.0%) 이후 가장 낮다.

청년층 인구는 782만2000명으로 15만2000명 감소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369만4000명으로 25만 명이나 줄었다.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에도 나서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412만8000명으로 9만8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청년 취업자 수는 34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매년 5



김라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월을 비교하는 부가조사 기준으로 2004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률도 43.8%로 1년 전보다 2.4%p 하락했다. 하락 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 가장 컸다. 고용률은 2022년 47.8%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내려, 2020년(42.2%)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26만6000명으로 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7.2%로 0.6%p 상승했다. 20대 초반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44.9%로 4.8%p나 급락했고 고용률도 41.6%로 4.2%p 떨어졌다. 25~29세 경제활동참가

율은 76.9%로 0.7%p, 고용률은 71.4%로 1.3%p 각각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대규모 공개채용이 줄어든 데다, 경력직 수시채용 중심으로 채용문화가 바뀌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도 청년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라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증가 등의 취업문화 변화가 청년층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지표에는 중동전쟁 영향 등 여러 외생 변수의 영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학 등의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도 부진했다. 졸업자 400만3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276만 명으로 20만2000명 감소한 반면, 미취업자는 124만3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다.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68.9%로 2.1%p 줄었다.

졸업 후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비중은 84.8%로 전년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인원이 아닌 비율을 기준으로 2004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불복… 노란봉투법 1호 행정 소송

법정·현장 노사 갈등 고조

한화오션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루는 첫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가운데 하청 노조도 오는 8월 공동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법정과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업체 ‘월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

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에 월리브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구내식당 조리·배식 등 일반 도급에서는 원청의 업무상 요구만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배력을 업무 형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권태혁 숲노무법인 노무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결정·통제했는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며 “계약 구조와 업무 지시, 인력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 재정부,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 예고

국내 기관·해외 운용사 등 참여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가 꾸려진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2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경부가 주관하게 될 이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에타결체원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 국제투자은행(IB) 등의 참여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구조다. 이 협의체는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검토·해소하는 상시 소통·환류 채널로 운영된다.

문 관리관은 블랙록·아몬디슈로더 등

주요 자산운용사와 국부펀드, 골드만삭스 등 국제 IB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다. 또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계획, 원화 국제화 계획 등을 물어 왔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문 관리관은 런던 소재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및 싱가포르 글로벌금융시장협회 외환 부문(GFXD)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외환 분야 설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RFI 제도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혁 추진 현황을 비롯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 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공급망 복원·금융지원 ‘촉구’

대출규제에 입주 예정자 잔금 난항  
청년·신혼 맞춤형 금융지원 요구  
인허가·착공·입주 있는 공급망 복원  
세제강화·거래 활성화에 의견 갈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업계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표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분야별 해법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값 하락과 시장 안정,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목표에 따라 적용해야 할 정책도 달라진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의견이 갈린 분야는 세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안은 강력해야지 구멍이 뚫리거나 누스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며 “거주 중심이라고 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뚝뚝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다른 구멍이 생기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양도세를 낮춰 준 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구나 이사를 다니면서 비과세를 엄청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 위원은 “시장 안정이 목적이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줄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 같이타기, 고평자의 ‘다운사이징’,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온라인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뚝뚝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부동산 금융의 경우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컸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

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론했다.

결혼 2년차인 한 직장인 역시 “직장생활 5년차인데 돈이 없다. 미래를 담보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6·4·2억원 정액 대출 한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에서도 대출총량 관리와 전세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공급 토론회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허가가 착

공으로,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를 몇 가구,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분양사업과 다른 별도의 공급자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20일 기준 0.30% 상승했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76주 연속 상승세며, 전주 대비 상승폭도 확대됐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6.03%나 뛰었으며, 수도권 상승률도 3.85%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주택가격 정해놓고 수요공급 조정하는 건 사회주의 국가”

» 1면 ‘뚝뚝한 한 채…’서 계속

다만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강남 등 고가주택 공급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재건축 물량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적절한 수요·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특정 지역이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집값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뚝뚝한 한 채’에 대해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를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

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나,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나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선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CCTV 새 인증에… 中企 공공시장 퇴출 우려

2028년 보안기능 확인서 의무화  
자금·기술 부족한 中企 대응 한계  
카메라 1대 인증비 최대 1000만원  
기기 호환 안돼 장비 교체 불가피

국정원 CCTV 보안인증 체계 개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은 인증 절차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한데 반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 CCTV 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의 독과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준용되던 TTA 보안 성능 품질 인증이 점진적으로 만료된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새로운 인증체계가 시행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인증 체계 대응을 위해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관련 협회

에서도 대기업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TTA가 발급하는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성능품질 인증은 2028년 4월 만료된다. 이후에는 ‘보안기능 확인서’ 취득 제품만이 공공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IP 카메라 해킹과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안 인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IP 카메라와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저장용 전용 하드웨어·CCTV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VMS)가 각각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IP 카메라와 VMS가 호환되지 않아 규제에 맞추려면 기한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인증 호환성 문제는 업계가 지적하는 정책적 맹점 중 하나다. 먼저 국정원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와 동일한 인증을 받지 못한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NVR), 통합 영상관제 소프트웨어(VMS)를 연결하면 화면에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등 장애

가 발생한다.

특히 호환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한 표준 통신 규격 온비프(OnVIF)를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차단한게 문제 됐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검증 기기 내 펌웨어에 온비프 통신 규격을 적용하는데 신규 인증 도입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호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대기업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모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직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IP 카메라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도 큰 부담이다.

알레로 공공 CCTV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비전은 지난달 대표 IP 카메라 모델 4종에 대한 보안기능 확인서를 모두 취득했다. 대기업임에도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보안, 접근 제어 기준 등 3대 핵심 보안 요구 사항 통과가 인증제도 시행 2년 3개월 만에 가능했다. /조민선 기자 msjo@



metro

## 포스코, 임단협 결렬… 창사 첫 파업 갈림길

기본급·격려금 놓고 노사 이견  
중노위 조정 불발 땀 쟁의권 확보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포스코는 올해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등 보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과 미국·유럽연합(EU)의 통상 규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

화를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의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개인 포상 확대와 특별 승진 활성화, 주택 대부 기준 개선, 설·추석 주유상품권 각 10만원 지급 등도 제안했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8·9일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조기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줬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계획,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 “화면 주름, 손으로 훑어야 겨우 찾아… 폴더블 선택의 시대”

26 삼성전자

SAMSUNG

갤럭시 폴더블·워치 미디어 브리핑

갤럭시 Z8 시리즈 3종을 차례로 펼쳐봤지만 화면 중앙의 주름은 눈에 띄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폴더블의 고질적 약점을 개선하고 라인업도 2종에서 3종 체제로 넓혔다. 콘텐츠 감상에 특화된 가로형 모델을 새로 내놓고 폴립8의 무게는 180g까지 줄였다. 접었다 펴는 폼팩터 자체를 설득하던 단계를 지나 쓰임새에 따라 제품을 골라 쓰는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갤럭시 폴더블·워치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폴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의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 ◆ 손끝으로 훑어야 느껴지는 주름

화면 주름을 줄인 비결은 신소재다. 3종 모두에 티타늄 합금 필름과 강화 티타늄 프레임이 결합한 ‘플렉스 티타늄’이 처음 적용됐다. 직접 펼쳐 살펴본 결과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던 주름은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비스듬히 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손끝으로 접히는 부분을 훑어야 미세한 굴곡이 겨우 느껴지는 수준이었다.

폴드8을 펼쳐 축구 영상을 재생하자 위아래 검은 여백이 줄면서 그라운드 전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소리도 화면 좌우에서 나뉘어 들리면서 공간감이 살아났다. 최대 밝기를 3000니트까지 끌어올리고 저반사코팅을 더한 덕에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화면이 거울처럼 비치지 않았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가운데 가장 가볍다.

가장 눈길을 끈 기능은 ‘마이 팬캠’이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특정 인물을 지정하자 인공지능(AI)이 해당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별도 영상으로 추출했다. 아이돌 무대에서 좋아하는 멤버만 담은 직



① 23일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에서 공개된 갤럭시 Z 폴립8 접고 편 모습(왼쪽부터)과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② 갤럭시 폴드 8의 접었을때와 폼때 모습. ③ 갤럭시워치9와 갤럭시 핏을 비교한 이미지. /구남영 기자

‘플렉스 티타늄’ 신소재로 주름 없이 폴드8 영상 재생하자 여백 사라지고 화면 좌우 소리나와 공간감 살아나 폴립8 두께 6.1mm에 무게 180g 역대 갤럭시 폴립 중 가장 얇고 가벼워 워치9 수면무호흡 중증도 분석기능

캠이나 운동회 영상에서 자녀만 골라낸 영상을 별도 편집 없이 만들 수 있다.

폴립8은 두께 6.1mm, 무게 180g으로 역대 갤럭시 Z 폴립 가운데 가장 얇고 가볍다. 커버 스크린인 플렉스윈도우는 홈 화면 구조를 메인 화면과 비슷하게 바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자 앱 목록이 바로 나타났다.

## ◆ “미디어 소비가 폼팩터 바꿨다”…S펜은 이번에도 빠져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라인업 재편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드7의 사용자 데

이터에서 출발했다. 김재엽 MX사업부 스마트폰상품기획그룹 파트장은 “폴드7으로 바(bar)형 사용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성과를 거뒀고 그 폼팩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했다”며 “사용 행태를 분석해보니 미디어 콘텐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폴드 라인업이 둘로 늘었다. 기존 세로형은 ‘폴드8 울트라’로 이름을 바꿔 생산성에 특화된 최상위 모델로 배치했고, 새로 선보인 가로형에 ‘폴드8’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폴드8은 접었을 때 5.5형 10대 16커버 화면, 펼쳤을 때 7.6형 4대3 메인 화면을 갖췄다.

과거 LG전자 옵티머스뷰 등 4대3 화면 비 제품이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파트장은 “10여 년 전과 지금의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히 다르다”며 “당시에는 메시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짧은 층

이 구글링조차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검색할 만큼 미디어 콘텐츠가 사용의 근간”이라고 답했다.

S펜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S펜은 고유 자산인 만큼 적용 시점과 기술력을 계속 검토 중이며 적합한 시기가 되면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폴립8에 탑재된 자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모델에 적용된다. 폴드8과 폴드8 울트라에는 쿼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간다. 갤럭시 워치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데서 나아가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예방 중심 기기로 방향을 잡았다. 차세대 MX사업부 스마트폰상품기획그룹 프로는 “증상이 일어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예방 중심 케어가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워치9는 수면무호흡 중증도 분석과 평소 건강 지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면 알려주는 기능, 수면과 활동량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심장건강점수 등을 새로 적용했다. 직접 손목에 채워보니 이전 제품보다 얇아진 디자인이 먼저 체감됐고, 연결부 버튼을 누르면 밴드가 바로 분리됐다.

최상위 모델인 워치 울트라2는 아웃도어 기능을 강화했다. 하반기부터 이탈리아 다 이빙 장비 업체 마레스와 협업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심 40m까지 다이빙을 지원한다. 차 프로는 “다이빙 컴퓨터는 고가 장비인 데다 다이빙할 때 말고는 쓰지 않는다”며 “이 장비가 제공하는 안전 기능을 워치에서 구현해 다이빙 컴퓨터 없이도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터리 용량도 전작 590mAh에서 800mAh로 35% 늘었다.

한편, 갤럭시 Z8 시리즈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내 사전판매를 거쳐 8월 7일 정식 출시된다. 출고가는 12GB·256GB 기준 폴드8 울트라 257만7300원, 폴드8 227만8100원, 폴립8 168만3000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갤럭시Z, 폴더블 새 출발점… 7년 기술력, 쉽게 못 따라와”

노태문 사장, 기자 간담회

“폴더블 일상 돼… 고객 기대 다양  
연내 8억명에 갤럭시 AI 제공할 것”

“오늘 공개한 갤럭시 Z 시리즈는 폴더블의 기준을 다시 세운 출발점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MX사업부장·사장)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폼팩터를 알리는 시기를 지나 이제 폴더블은 일상이 됐고 고객들의 기대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춰 콘텐츠 감상, 생산성, 휴대성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폴더블 라인업을 앞세우고, 에이전틱 AI와 AI 헬스 경험을 확대해 차세대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갤럭시 Z8 시리즈는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을 구현했으며, 새롭게 적용한 ‘플렉스 티타늄’ 기술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겸 MX(Mobile eXperience) 사업부장이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국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노 대표는 “폴더블은 기술로도 시장으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더 많은 기업의 시장 진입은 이미 폴더블이 대세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폴더블을 처음 선보인 이래 7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고객에 대한 이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한발 앞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폴더블의 다음 경쟁력은 하드웨어를 넘어 AI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는 이제 누구나 당연하게 기대하는 인프라가 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쉽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8억 명에게 갤럭시 AI를 제공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AI를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며 “AI는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나온다”며 스마트폰, 워치, TV, 가전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삼성전자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만큼 다양한 디바이스로 일상

곳곳에 함께하는 회사는 없다”며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 두고, AI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I 헬스 경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새로운 갤럭시 워치는 수면, 회복,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삼성 헬스는 수면·운동·식사·마음 건강에 더해 ‘생체 징후’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노 대표는 “건강 관리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 삼성 헬스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AI와 디지털 헬스 기술을 결합해 한층 개인화된 건강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

metro



# AX강국 대한민국

바다 속 해저 케이블부터  
하늘 밖 우주 위성통신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온 KT

이제는 AX 인프라 위에  
최적의 AX 서비스까지 더해  
국가·산업·일상의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 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로 복귀  
국토교통위원회 후보 선거만 경선  
“상임위 통해 정부·여당 견제할 것”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함으로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김희정(교육위원장)·송석준(외교통일위원장)·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이양수(정보위원장)·유의동(국토교통위원회) 후보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엔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으나, 임 의원이 사의를 표하고 김정재 의원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유동수(정부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이양수  
정보위원장

위원장)·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원장)·송기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진성준(국방위원장)·김영진(행안위원장)·이재정(문체위원장)·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한병도(운영위원장)·이광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도 말고,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깨버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로 국민의힘에 숨통이 트이면서, 원내로 복귀해 강도 높은 대정부·대여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추진하고, 국토교통위원회 후보 선거만 경선을 치렀다. 경선 결과, 유의동 후보가 49표, 김정재 후보가 48표를 받으며 최

종 후보로 선출됐다. 원내 지도부는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4선인 유의동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경선이 치러졌다. 유의동 의원은 국토위원장 후보 선출 소감으로 의총장에서 “무엇보다도 치솟는 집값, 전·월세 가격, 그리고 약자와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주택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말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직 끝끝내 강탈했다”며 “통상 여당이 책임지고 맡았던 정보위와 외통위를 야당에 떠넘겼다. 그렇지만 7개 상임위도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제할 수 있고, 산중위에서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 출속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허구적 실상을 파헤칠 수 있다”며 “외통위에서는 최근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7개 상임위는 2년 뒤 총선 승리와 국회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견제하고 싸우면서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변화를 준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호남 표심에 촉각

민주당 본경선 주목 포인트  
권리당원 약 30%가 호남 집중  
2순위 지지 확보도 중요한 변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동등한 1인1표제를 실시하면서 당심을 잡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선거 초반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당원의 30%가 있는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치열하다.

◆높아진 권리당원 ‘힘’에 ‘거친 말’로 지지층 결집 시도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는 알려진 바 같이 ‘명청대전’으로 불리는 계파 간 대립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친이재명(친명) 노선을 걷고, 대표 시절 청와대와 엮박자를 냈다고 평가받는 정청래 후보는 겉으로는 친이재명을 외치지만 친청(친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보다 계파전으로

치러지다 보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활용되고 있다.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은 정청래 후보가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불린 박찬대 후보를 꺾었던 경험도 초반부터 후보들이 거친 말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이유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별다른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수해 지역에 내려가 SNS에 간간히 메시지를 냈던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경험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은 외부 캠프도 차리지 않고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민석 후보는 출마선언 당시 정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시절 행보를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표현했고 전당대회 선전지 개입설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외부세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당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 성향 강성 지지층은 정 후보와 친천지 연계 의혹을 띄우면서 정 후보 측과 친청계 최고위원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와 김 후보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본경선, 호남 표심 공략 중요해질 듯

본경선이 시작됨에 따라, 권리당원의 30%가 있는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본선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한번 더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위 투표를 남은 후보에게 가산하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2순위표 확보도 관건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없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 대표 시절의 성과를 소개했다.

정 후보는 호남 지지세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권추자인 김민석(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의 지지보다 당심이 더 중요하다”며 “지난해에도 호남 국회의원 상당수가 저를 돕지 않았지만 당원들이 선택했다. 이번에도 당심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우상호 강원지사를 만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이다. 제대로 된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여당을 만들어서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고 총선 준비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

/박태홍 기자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

수사 공백 보완책 집중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법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내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관 상임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

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했다”며 “이를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입장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수사 공백 방지책으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 절차,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 직접 수사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수사관 실명제, 책임제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수사 실명제와 책임제가(이와 관련한) 검토 방안”이라며 “죽조심사(逐條審査)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와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집중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이 대통령, 美·남미·독일 5개국 순방

AI 서밋서 ‘AI 선언’ 발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5개국 순방에 나선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서밋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후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순차적으로 만난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



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에서밋에는글로벌 박테크기업 CEO들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국내의 AI 기업,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국내 기업과 박테크기업과의 MOU 등 협약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

/서예진 기자



# 꿈에 그리던

## NH농협은행 X 기안84

# 팝업 OPEN

나만의 모임 설계부터 꿈꾸던 여행,  
아트 콜라보 전시, 특별한 베이커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은행  
**DREAM BANK를 만나보세요**



1F

### HOPE ZONE

|        |                                  |
|--------|----------------------------------|
| 공간 안내  | NH올원모임통장과 함께 모임의 즐거움을 발견         |
| 스페셜 혜택 | 나만의 DIY 키캡 키링 제작, 리미티드 굿즈 구매     |
| 주요 콘텐츠 | 모임력 테스트, 모임통장 게임, 럭키슬롯, 모임증 발급 등 |

2F

### DREAM ZONE

|        |                                    |
|--------|------------------------------------|
| 공간 안내  | NH트래블리체크카드와 함께 특별한 꿈을 실현           |
| 스페셜 혜택 | 기안84 콜라보 카드 전시 (모임, 여행, 러닝)        |
| 주요 콘텐츠 | 러닝 게임, 디지털 드로잉 월, 나만의 카드 스티커 꾸미기 등 |

3F

### NH DREAM CAFE

|        |                                   |
|--------|-----------------------------------|
| 공간 안내  | 국내산 쌀로 만든 달콤한 베이커리와 음료 제공         |
| 스페셜 혜택 | 나폴리맛피아 협업 스페셜 시그니처 디저트            |
| 주요 콘텐츠 | 1층에서 모임통장 발급 시 입장권 증정 (선착순/한정 수량) |

날짜 : 2026.06.19. ~ 2026.07.31. 장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13길 11 시간 : AM 11:00 ~ PM 7:00



# 통신비·소비행태 등으로 ‘금융 초년생’ 대출 상환능력 가늠

## 금융권, 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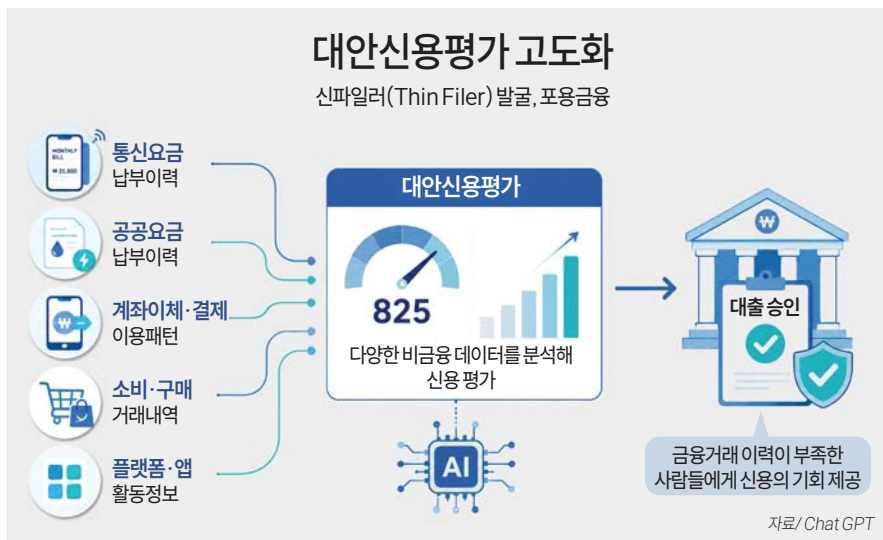
토스-SBI저축은행, 업무협약  
중저신용자에 ‘토스스코어’ 활용  
NH농협 ‘NH 크레딧 온’ 출범  
청년층 등 위한 평가모형 개발

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를 발굴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카드 이용 기록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비와 공공금 납부 이력, 결제·송금 내역, 소비행태, 플랫폼 이용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가려내려는 전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포용 금융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과 핀테크, 신용평가회사(CB), 인공지능(AI) 기업 간 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 ◆ 신용평가 협업시대

최근 토스는 SBI저축은행과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SBI저축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토스가 한국평가데이터와 공동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 ‘토스스코어’를 활용할 예정이다. 토스스코어는 카드 지출과 투자·보험 납입 이력 등 고객의 자금 관리 방식을 폭넓게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은 농협캐피탈, 카카오페이, 코리야크레딧뷰로(KCB), 애자일소다, 어니스트AI, 크레파스솔루션, 한국평가정보 등과 함께 대안신용평가연합체인 ‘NH 크레딧 온(ON)’을 출범시켰다. 참여 회사들은 각자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해 금융이력 부족자와 청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약 20만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니스트AI 등과 함께 ‘뱅크샐러드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있다. 소비 데이터와 플랫폼 이용 패턴뿐 아니라 건강검진 주기 등 건강행동 정보까지 종합해 신파일러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 개발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가 아닌 금융시스템의 구조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낮은 신용점수나 짧은 금융이력, 한 차례의 연체 경험만으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차주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이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신용자와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할수록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위축되고, 그 부담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모든 금융 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긴다”며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만큼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도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 ◆ 미국·일본 등 해외는?

미국은 대표적인 개인신용평가체계인 ‘FICO’ 점수를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이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최근에는 임대료와 공공금,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신용평가사 엑스페리안은 ‘엑스페리안 부스트’를 통해 소비자가 은행·카드 계좌를 연결하면 통신비와 공공금, 온라인 임대료, 보험료 등의 정상 납부 이력을 신용정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탈라는 전통적인 금융정보가 부족한 케냐와 필리핀, 멕시코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기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엑스페리안과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온 등 복수의 신용평가회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신용정보를 산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자체 심사모형과 결합해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한다.

일본은 단일 신용점수에 의존하기보다 CIC 등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한 계약내용과 대출잔액, 청구·상환 현황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다. CIC도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거래·상환 정보를 수집해 회원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에 가깝다.

해외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생활·행동 정보까지 평가에 포함될 경우 어떤 정보가 대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특정 계층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안정보의 예측력뿐 아니라 정보 활용의 적정성과 설명 가능성, 차별 여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회사가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 대출 승인과 금리·한도 산정에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충분한 검증과 데이터 축적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성능이 확인된 모형을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2금융권도 포용금융 기조… ‘대안신용평가’ 확산

새마을금고, 12억 들어 시스템 구축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 개발 발주  
개발 평가모델 2금융권에 공유 계획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안신용평가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비금융 데이터로 차주의 신용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대안신용평가는 통신, 소비, 공공요금 납부 등 비금융정보(대체정보)를 활용해 차주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금융거래 이력만으로 차주의 신용을 평가했던 기존 모델보다 평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재구축 용역을 시작했다. 약 12억35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최신 내·외부 정보와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 비대면 전용·외국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대안 정보를 활용한 평가 항목과 산출 로직을 설계하고,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대출 실행 후에는 행동 평점을 활용한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등급별 예상 부도율(PD)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최근 ‘비금융 서민 대안CB(신용평가) 개발 사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예산은 약 3억원으로, 개발된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자체 신용평가 체계 개발이 어려운 2금융권에 공유될 계획이다.

2금융권의 일률적인 고금리 부과 체계

를 개선하고, 금융 심사가 거절된 차주 중에서 잠재 우량 중저신용층을 선별·구제한다는 구상이다. 2금융권의 신규 중금리 대출 고객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저축은행권에서는 협업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다.

애뉴온저축은행은 최근 출시한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에 ‘복합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했다. 기존 자사 신용평가모형에 ‘토스소호스코어’ 신용평가모형을 접목한 것. 토스소호스코어는 토스와 한국평가데이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이다.

사업주 평가에 더해 사업장 평가 기준까지 더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사업주의 플랫폼 이용 이력을 심사 기준에 포함해 평가 기준을 고도화했다.

대안신용평가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당국의 포용금융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취업 청년, 주부, 퇴직 고령층 등의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금융권이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안신용평가 체계는 다각도로 중·저신용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신용평가 체계 개발에 인공지능(AI) 등이 활용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데이터 품질, 모델 불투명성 등이 대안신용평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모델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모형 자체의 편향성도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한화 건설부문, 안전캐릭터 ‘한수호’ 공개

근로자에 안전수칙 친근하게 전달  
안내판·포스터·교육자료 등에 적용

한화 건설부문은 23일 건설현장의 안전화를 확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기획한 안전캐릭터 ‘한수호’를 공개했다

‘한수호’는 흰색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밝고

친근한 표정과 듬직한 모습으로 현장 구성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낮추는 동시에, 안전수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이미지를 담았다.

캐릭터 명칭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밍 공모전과 사내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한수호’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화의 ‘한’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의 ‘수호’를 결합해 직관성과 친근함을 높였다.

한화 건설부문은 앞으로 ‘한수호’를 현

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안전포스터, 교육자료, 캠페인 콘텐츠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별·공종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에도 활용해 근로자들이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안전보건교육과 안전 캠페인, 사내 온라인 콘텐츠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에도 ‘한수호’를 적극 활용해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한화 건설부문의 안전캐릭터 ‘한수호’

어낼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친숙한 현장 안전 마스코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안전은 제도와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한수호’가 현장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안전수칙 실천을 이끄는 친근한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B금융그룹

상반기 순익 4조 육박  
전년동기 대비 13% ↑

KB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반짝이 된 가운데 증권 등 수수료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KB금융은 23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8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9922억원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들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호 보완적인 실적을 이어왔다”며 “비은행 계열사의 상반기 그룹 내 실적 기여도가 44%까지 상승했으며, 특히 증권사의 기여도는 21%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비은행의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순이자이익은 6조47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그룹 순이자마진(NIM)과 은행 NIM이 각각 1.94%, 1.74%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여신 성장과 함께 조달비용 관리로 수익성을 관리했다.

순수수료이익은 2조9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 급증했다. 증권,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계열사의 수수료이익이 큰 폭 확대되고, 은행의 자산관리 수수료 이익도 향상됐다. 특히 2분기 수수료 이익은 1조6019억원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룹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95%, 14.09%다.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0.39%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 LG전자, 기능성 소재 생산 확대… 글로벌 사업 속도낸다

하이퐁·창원 생산라인 본격 가동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전략  
“사업 기회 지속 확대해 나갈 것”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인 기능성 소재 사업의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베트남 하이퐁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하며 글로벌 고객사 대응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최근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에서 유리 파우더 기반 기능성 소재인 ‘LG 퓨로텍’과 ‘이지클린 법랑’ 생산라인을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퐁 생산라인은 부지 3200㎡(약 970평) 규모의 전용 공간에 구축됐으며 연간 약 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LG전자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LG 스마트팩’에서도 연간 약 4500톤 규모의 기능성 소재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이퐁 생산라인 가동으로 창원과 하이퐁을 합쳐 연간 총 6500톤 규모의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위생·안전 기준 강화와 합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에서 유리 파우더 기반 기능성 소재인 ‘LG 퓨로텍’과 ‘이지클린(Easy-Clean) 법랑’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LG전자

계 기능성 소재 수요가 가전을 넘어 건축 자재, 의료기기, 식품 포장재 등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가 하이퐁 생산라인을 구축한 것도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이퐁 생산라인은 북미와 유럽, 중국은 물론 인도와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LG 퓨로텍이 속한 글로벌 항균제 시

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항균제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6억 6000만달러에서 2032년 약 72억 9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LG 퓨로텍은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 등의 자재에 소량 첨가해 미생물로 인한 오염을 억제하는 항균·항곰팡이 기능성 소재다. 원재료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소재와 높은 호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LG 퓨로텍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뿐 아니라 건축자재,

위생용품, 식품 포장재,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지클린 법랑은 금속 표면에 유리질 세라믹을 얇게 입히는 기능성 코팅 소재다. 전자레인지와 오븐 등 조리가전 내부에 적용하면 음식물이나 기름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변색과 긁힘이 적다. 고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해 위생과 관리 편의성이 중요한 주방가전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기능성 소재 사업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균일한 품질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하이퐁 생산라인은 원료 투입부터 용융, 냉각, 분쇄,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체 공정의 약 80%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도 확보했다.

LG전자·김영석 HS기능성소재사업실장은 “생산 인프라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소재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원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삼성전기, 글로벌 대형기업에 AI 서버용 MLCC 공급

3000억 규모 계약… 실적개선 탄력  
장덕현 사장 “기술 경쟁력 인정 받아”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기업과 약 3000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올해 들어서만 실리콘 캐패시터, 박테크向 MLCC에 이어 세 번째 대형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하며 AI 서버용 부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3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000억 원(2억 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삼성전기는 이 기간 고객사의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성능 MLCC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의 MLCC 설계 기술과 고온·고전압 환경에서의 제품 신뢰성, 글로벌 대형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기는 지난 5월 글로벌 고객사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글로벌 박테크 기업과 약 4,500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장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사례로 보고 있다. MLCC가 단순 수동부품을 넘어 AI 인프라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전략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가 나온다.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서버 대비 10배 이상의 탑재량(서버랙 기준 최대 60만 개)이 요구되는 데다 초소형·초고용량, 고온·고전압, 휨 강도 등 까다로운 신뢰성 기준을 충족해야 해 실제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다.

이 같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으로 하이엔드 MLCC의 납기는 최근 8주에서 24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최대 10%, 타이요유덴은 6~13%의 가격 인상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2026년 MLCC 가격 전망을 기존 보

합에서 0~5% 상승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MLCC 시장이 AI 인프라 중심의 강한 수요와 소비자 부문 부진이 공존하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기, 타이요유덴 등 선도 업체의 수주잔고 대비 매출(BB) 비율은 이미 1을 웃돌고 있다.

모도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MLCC 시장 규모는 2026년 318억 7000만달러(약 47조원)에서 2031년 641억 9000만달러(약 94조원)로 확대돼 연평균 15% 넘게 성장할 전망이다. 차량 전동화와 AI 인프라, 엣지 컴퓨팅 확산으로 MLCC를 비롯한 수동부품 수요가 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MLCC 시장도 반도체 설비 확장과 AI 기기 전환에 힘입어 2026년 37억 6000만달러(약 6조원)에서 2031년 89억 2000만달러(약 13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도 AI 서버용 MLCC 비중 확대에 따른 삼성전기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용 MLCC 매

출 비중은 2025년 50%에서 2027년 43%로 낮아지는 반면 AI용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1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의 2026년과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잇달아 상향 조정됐다. 수요 구조가 소비자(B2C) 중심에서 서버 중심 기업간거래(B2B)로 재편되는 가운데 높은 가동률과 재고 축소로 가격 인상 여건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기는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MLCC 중장기 공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 확대를 통해 AI 서버용 MLCC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 MLCC가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고객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 선단 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AI 부품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삼성전자 노사, DS부문 성과급 사회공헌 활용 방안 논의

1인당 수백만원 수준 출연 전망

삼성전자 노사가 다비이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일부를 사회공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특별경영성과급을 활용한 사회공헌 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회사 측 요청과 성과급을 둘러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회공헌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공헌 방안으로는 임직원이 특별

경영성과급의 0.5~1%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정하면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제성 없이 임직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구조로, 1인당 출연 규모는 수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특별경영성과급 6억원 중 1%를 출연하면 600만원을 기부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 출연하는 식이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조합원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 5월 20일

타결된 임금협약 잠정합의가 있다. 당시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DS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기존 OPI 1.5%를 더해 총 12%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률 상한도 폐지했고 제도는 10년간 운영되며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50조~400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연간 3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직원이 이 중 1%를 사회공헌에 출연할 경우 연간 3000억원, 제도 운영 기간인 10

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출연 방식은 자사주 지급 시 기부금을 먼저 차감한 뒤 잔여 주식을 지급하고, 차감액은 회사 또는 관련 재단을 통해 공식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는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도 DS부문 특별상여금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그랜트로 출연해 총 182억원 규모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임직원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출연 비율과 기금 사용처 등은 추후 노사 협의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 현대차, 2분기 최대 매출 영업익 전년比 20% 감소

현대차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품 공급 차질과 인센티브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확대로 하반기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차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9조 2153억원, 영업이익 2조 8509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호조와 우호적인 교환율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사 화제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20.8%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5.8%를 기록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2조 888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6.9% 감소한 99만 1885대를 판매했다. 국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15만 7647대를 판매했다. 이는 대전에 있는 부품사 화제로 제네시스 등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4.9% 감소한 83만 4238대를 판매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선 0.9% 증가한 26만 4587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하반기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으로 아반떼 플채인지와 제네시스 신차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판매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 정상화와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연초 제시한 연간 매출 성장률 1~2%, 영업이익률 6.3~7.3%의 가이던스도 유지했다.

한편 배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25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상하이 전경.

##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상하이’ 개관

현대자동차·기아가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의 의견을 상품 개발에 반영하며 글로벌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중국 상하이시 장안구에 사용자 경험(UX) 연구 거점인 ‘UX 스튜디오 상하이’를 개관했다고 23일 밝혔다.

UX 스튜디오 상하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와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를 차세대 상품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거점이다.

현대차·기아는 이곳에서 중국 소비자의 생활 방식과 이동 경험을 분석해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K-뷰티, 美·유럽 홀렸다… 中企 수출 640억弗 ‘신기록’

## 중기부, 상반기 中企 수출동향

전년比 11.6% 늘어 호조 지속  
수출기업 8만490곳 역대 최다

온라인 수출 7.4억弗로 급증  
화장품 50.7억弗, 30.7% 증가  
반도체·장비 AI 호황에 최고치

중소기업 수출이 화장품 등 'K-뷰티' 호조로 상반기 기준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8만490개사(잠정치)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중에선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9개국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중동 수출은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에서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내놓은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총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였던 지난해의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찾은 외국인들이 메이크업 강연을 들은 후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574억 달러보다 11.6% 늘어난 액수다. 역대 2위는 591억 달러를 기록한 2022년이였다.

중소기업 수출을 꾸준히 이끌고 있는 화장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50억7000만 달러를 수출, 역시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7%나 증가한 액수다.

가장 수출이 많은 기초 화장품(23억

2000만 달러)이 전년 동기보다 34.8%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팩은 2억6000만 달러로 53%나 늘었다.

화장품만 상반기에 9억6000억 달러를 수출한 미국은 9분기 연속 K-뷰티 최대 수출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 부과·소액면세 폐지 등 통상위협 속에서도 콘텐츠 커머스, 현지 리테일 팝업·체험형 마케팅 등 현지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가 공

정적 영향을 줬다.

화장품은 유럽에서도 폴란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2022년 3분기 이후 두자릿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반기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5억5000만 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하며 잠시 주춤했다.

화장품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주요 품목인 중고자동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33억1000억 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상반기(39억1000만 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다만 독립국가연합(CIS)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나 하락했다. 중고차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전분기 대비 증가율 65.2%), 알바니아(〃58.5%), 타지키스탄(23.2%) 등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반도체(22억8000만 달러, 48.3% ↑), 반도체 제조용 장비(20억3000만 달러, 33.2% ↑)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 및 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 및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베트남 등으로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8.6% 늘어난 7억4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4051개사(30.5% ↑)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은 7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통로로 가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온라인 화장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다시 썼다.

중기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품목 다양화 및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보조배터리 사고 잇따라… 항공사 ‘직접관리’ 검토

반입·사용 규제 강화에도 화재 지속  
번호 부여 뒤 전용용기 일괄 보관  
탑승 지연·불실 책임 등 과제

국내외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리 방식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승객 자율 관리 중심의 현행 체계 대신 항공사가 보조배터리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에서 필리핀 칼리보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났다. 앞서 1월에도 청주행 티웨이항공과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들이 진압했다. 지난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도 수하물 선반에 보관된



제주항공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금지 안내 포스터. /제주항공

보조배터리의 내부 절연 파괴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강도 높은 보조배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위탁수하물 반입과 기내 선반 보관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160Wh 이

하 제품만 1인당 최대 2개까지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할 수 있다.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보조배터리의 위탁수하물 반입을 금지하되 100Wh 이하는 개인 사용 목적이면 개수 제한 없이, 101~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기내 사용이나 충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우스웨스트·아메리칸·델타항공 등은 선반 보관과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등 자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 미국 FAA에 따르면 기내 리튬배터리 사고는 지난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 사고 품목으로는 보조배터리(299건)와 전자담배

(157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는 두 품목의 확산으로 항공기 내 리튬배터리 양이 사실상 두 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반입·사용 규제만으로는 화재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내 리튬배터리 양이 늘어난 데다 기내 기압은 지상의 60~80% 수준으로, 손상되거나 품질이 낮은 배터리의 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승객이 발열·팽창 등 이상 징후를 직접 확인하는 구조다.

논의의 초점도 관리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항공 당국과 업계는 관리 책임을 승객에서 항공사로 전환해, 탑승 시 보조배터리에 번호를 부여한 뒤 전용 용기에 일괄 보관·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 ‘SK네트웍스 투자’ 케이론

### 800만弗 시드투자

멘로벤처스 참여·글로벌 자문단 위촉

스탠포드 대학 출신 AI 및 바이오파 전문가들이 SK네트웍스와 함께 설립한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케이론(Cheiron)'이 실리콘밸리 투자업계의 선택을 받았다. 멘로 벤처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 속에 8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에 나서며 글로벌 AI 바이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케이론은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탈인 멘로 벤처스가 이번 시드 투자 라운드의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더나 등 40개 이상의 바이오텍 기업을 창업한 로버트 랭어 MIT 석좌교수와 프리다 루이스-홀 전 화이자 최고 의학 책임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CJ대한통운, ‘더 운반’ 화주 7000곳 돌파

차주 7만명 확보, 3년 새 37배 증가

CJ대한통운의 미들마일 운송 브랜드 '더 운반(the unban)'이 출시 3년 만에 7000여 곳의 화주사, 7만 여명의 차주가 입자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더 운반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디지털 운송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나가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화주는 사업 초기 150여 개사에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000여 개사를 넘어섰고, 차주도 1900여명에서 3년 새 3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차주가 입자는 화물운송 주선시장 영업용 화물차 약 26만 대 가운데 30%에 육박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대규모 디지털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물운송 플랫폼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운송 매칭 기회가 확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 경쟁력이다.

지난 2023년 화·차주 실시간 매칭 플랫폼으로 출발한 더 운반은 올해부터 기업 고객 계약운송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정기 물량에는 안정적인 차량과 운임을, 수시 물량에는 신속한 배치를 지원해 고객이 물동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주에게는 다양한 화주의 운송 물량을 연결해 공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행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에코프로, 인니 니켈 제련소 핵심설비 반입

연산 9만톤 규모, 연내 준공 목표

에코프로 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가 광석에서 니켈을 분리하는 핵심 설비인 반응기를 반입하며 연내 준공을 향한 핵심 공정에 들어갔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BNSI 제련소 건설 현장에서 반응기 입고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반응기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니켈 광석과 황산 용액을 반응시켜 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HPAL 공정의 핵심 설비다. 반응기 반입은 BNSI 프로젝트가 토목·건축 중심의 초기 공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련 설비 설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BNSI 제련소 일대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설비와 원료, 부자재 등의 통관·세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 관련 세금도 유예 또는 면제돼 제련소 운영 효율과 운전자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산 9만톤 규모의 BNSI 제련소에는 기당 연산 3만톤 규모의 반응기 3기가 설치된다. 현재 2기가 반입됐으며 나머지 1기는 오는 9월 도착할 예정이다. 반응기 설치가 완료되면 제련소는 이르면 올해 말 준공과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2분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BNSI는 에코프로가 지분 39%를 보유한 합작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기업 PTVI(30%)와 중국 GEM(21%)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 포티투닷

### 모빌리티 인재 70명 채용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마태 모빌리티 혁신 인재 확보에 나선다. 포티투닷은 모빌리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7개 부문 최대 70여명의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집중 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AI, 차량용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 기획, 사업개발 등 비개발 직군의 경력사원도 함께 모집한다. 채용하는 전체 포지션은 30여개로, 주요 개발 직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딥러닝·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등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자 부담을 줄인 '빠른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서류접수 후 면접 진행 여부는 업무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안내되며, 1·2차 면접 등을 포함해 총 28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양성운 기자 ysw@



#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크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UV-A 98% / UV-B 99% 차단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 AI 데이터센터가 바꾼 게임 흥행기준… 그래픽보다 ‘최적화’

비용에 고사양 PC 보급 둔화  
이용자 다수, 중급 그래픽카드 사용  
‘스텔라 블레이드’ 등 최적화 앞세워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을 더 쉽게 만들었지만, 정작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PC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이 오르면서 게이밍 PC 업그레이드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얼마나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했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PC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느냐’가 흥행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증설은 반도체 시장의 수요 구조를 바꾸고 있다.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엔터프라이즈 SSD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반 PC용 메모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빠듯해졌다. 시장조사업체들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동안 메모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AI가 만든 이미지.

망하고 있다.

게임사들이 개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적화 경쟁 끝…’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가 승부

과거 PC 게임 시장은 레이 트레이싱과 4K 해상도 등 최고 그래픽 구현 경쟁이

중심이였다. 하지만 스텝 하드웨어 조사에서도 RTX 3060·4060 등 중급 그래픽카드 이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신 하드웨어만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 경우 상당수 이용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개발사들은 ‘그래픽 품질’보다 ‘이

용자 주변’을 선택하고 있다.

최적화는 다양한 CPU·GPU 환경에서도 프레임과 로딩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전반을 의미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래픽은 상황 평준화됐지만 최적화는 여전히 개발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영역”이라며 “출시 직후 ‘최적화가 좋다’는 평가가 장기 흥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적화 잘했다’는 평가가 흥행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국내 게임들도 공통적으로 최적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은 DLSS 4와 AMD FSR, 인텔 XeSS를 지원하며 다양한 PC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

네오위즈 ‘P의 거짓’ 역시 높은 그래픽 품질에도 프레임 안정성과 낮은 버그 발생률을 유지하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필어비스 ‘붉은사막’은 자체 엔진을 기반으로 대규모 오픈월드와 성능 최적화를 함께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이크 레이더스’도 테스트 단계부터 프레임 안정성과 서버 최적화를 반복 점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개발 효율을 높일수록 최적화 경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용자의 PC 성능이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그래픽이 좋다’가 구매 이유였다면 지금은 ‘내 PC에서도 잘 돌아간다’가 구매 이유가 되고 있다”며 “AI 시대 게임 경쟁력은 최고 사양보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최적화 기술에서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게임 개발 방식을 바꿨다면, AI 데이터센터는 흥행 공식을 바꾸고 있다. 이제 게임사의 경쟁력은 화려한 그래픽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끊임 없이 즐길 수 있는 최적화 기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LGU+, 개인화 AI 기술 국제 경쟁력 입증

정보검색 분야 대표 학술대회 채택  
대규모 트래픽에도 일관된 성능 유지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화 인공지능 기술 ‘퍼스널 인텔리전스’ 연구 논문이 정보검색 분야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검색 분야 대표 학술대회 ‘SIGIR 2026’은 호주 멜버른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간) 열렸다.

회사가 연구를 통해 발표한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상황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통화 요약과 이용 기록, 위치 기반 패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보다 입체적으로 고객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술은 연령과 특정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구조였다.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고객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상황이나 관심사를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금제나 콘텐츠를 추천할 때 연령대 등 일반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객의 실제 이용 패턴과



퍼스널 인텔리전스 논문 집필에 참여한 LG유플러스 구성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관심사를 반영해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한다.

특히 실제 통신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설계했다. 데이터 외부 이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루 수십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정확도를 확보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복구 체계도 구축했다.

향후 ‘에이전틱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IPTV 추천과 고객센터 등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다. 에이전틱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AI가 고객과의 대화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로 얻은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기존 정보와 연결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전영환 LG유플러스 퍼스널 에이전트 기술팀장은 “이번 SIGIR 논문 채택은 LG유플러스가 개발해 온 개인화 AI 기술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AI 기술을 고도화해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 SKB,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확산 ‘호평’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SK브로드밴드는 서울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산재 예방 성과 창출,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회사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과 함께 주최한 대국민 안전보건 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도 이날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 노동 안전 슬로건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주제다.

대상은 ‘아빠!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은 우리가족 행복’ 등이 차지했다. 또 행동심리학으로 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주제로 강연도 진행했다.

/조민선 기자

## 탐네이버, 스마트빌딩 기술 첫 외부 상용화

자율주행 로봇·디지털트윈 구축

탐네이버가 일본 도쿄 핵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복합시설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 시속 1784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빌딩 기술을 처음으로 외부 상용화했다.

네이버는 23일 NTT동일본,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빌딩 운영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는 도쿄역과 연결된 45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상업시설, 호텔, 버스터미널, 초등학교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사업에서 탐네이버는 자율주행 로봇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 디지털트윈 등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미쓰이부동산은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운영과 시설 연계를 맡고, NTT동일본은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과 로봇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이번 사례는 탐네이버가 1784에서 구

축·운영해 온 스마트빌딩 모델을 외부 건물에 처음 적용한 상용화 프로젝트다. 특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나 별도 클라우드 환경이 없는 일반 빌딩에서도 로봇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3사는 우선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탐네이버는 1784에서 축적한 로봇 운영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예외 상황 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루키’, 멀티 로봇 관제 시스템 ‘아크브레인(ARC brain)’, 디지털트윈, 비전 기반 측위 기술 ‘아크아이(ARC eye)’ 등이 적용됐다.

3사는 앞으로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실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과 디지털트윈 기반 빌딩 관리 등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 하이브, 패션협회와 K-패션 경쟁력 강화

K-팝 IP 패션 생태계 구축

하이브가 지난 22일 한국패션협회와 엔터테인먼트 및 패션 산업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패션협회가 산업통상부 지원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K-패션 커넥트’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팝과 K-패션 산업을 각각 대표하는 하이브와 한국패션협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산업적 역량을 바탕으로 K-팝 IP 기반 패션 상품과 연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국내 우수 제조 기업과 협력



(왼쪽부터) 유동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대표, 최우혁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

/하이브

하는 K-패션 상품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콘텐츠와 제조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신호철 대표 “‘설명 가능한 AI’ 통해 투자 진입장벽 낮출 것”

## 카카오페이증권 간담회

신 대표, 새로운 투자 문화 강조  
美 투자자, K-주식 접근성 개선  
IPO 기반 LP·S&T 사업 확대

“좋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AI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AI가 더 중요합니다.”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가 AI를 앞세운 증권사의 미래 청사진을 내놔다. AI를 통해 국민의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미국 개인투자자에게 한국 주식 투자 길을 열어주는 한편, 결혼과 출산, 취업 등 인생의 주요 순간마다 주식을 선물하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자 확대부터 글로벌 진출, 생애 주기 금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전략이다.

### ◆ 투자 판단 돕는 투자에이전트 공개

신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제대로 투자하고 자산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고 무섭고 혼자라고 느끼기 때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를 위해 개인 맞춤형 AI 투자에이전트를 선보인다. 단순히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AI가 아니라 투자자의 성향과 자산 상황을 이해하고 금융교육과 투자 판단을 돕는 AI를 지향한다.

신 대표는 “투자의 판단과 결정은 결국 고객이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투자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편이 아니라 고객 편에서 위험과 기대수익을 설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 서비스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AI가 왜 그런 답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연말에는 일부 투자에이전트 기능을 공개하고,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리서치 조직 운영 방식도 기존 증권사와 다르게 가져간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리서치팀을 AI서비스센터 산하에 두고 있다. 신 대표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제대로 큐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기업을 분석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美로 향하는 K-주식…IPO·생애주기 투자까지 사업 확장

AI 전략은 해외 사업과 기업금융(IB) 확대에도 연결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시버트파이낸셜과 함께 미국 개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 주문 연결을 넘어 콘텐츠와 투자 커뮤니티를 함께 제공하는 ‘K-주식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목표다.

신 대표는 “현재 양자 실무진이 매주 콘퍼런스콜을 하며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미국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활용한 24시간 거래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외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카카오페

이증권은 IPO 주관 업무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ETF 유동성공급자(LP)와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신 대표는 “리테일과 가장 시너지가 큰 영역”이라며 “스타트업 투자부터 IPO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주식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공개했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최대 10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데 이어, 내년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도 10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 주식을 선물하면 투자의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생애 첫 주식이 가장 좋은 금융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식을 지급하면 연간 약 200억원이 들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입학과 취업 등 인생의 주요 순간마다 주식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박현주 “코빗, 미래에셋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전략가)

### 미래에셋, 코빗 인수 마무리 단계 ‘지능형 투자 플랫폼’ 청사진 제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사진)가 코빗을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사업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3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박 GSO는 코빗의 새 브랜드 ‘디지털X(Digital X)’ 출범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코빗은 오늘 디지털X라는 이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며 “미래에셋 3.0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함께 구현해 나갈 공동의 항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X’는 미지의 미래이자 서로 다른 가치가 교차하고 융합할 때 만들어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미래에셋의 노하우와 코빗의 전문성을 결합해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GSO는 디지털X를 미래에셋 3.0을 구현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와 토큰증권(STO), 스테이블 코인,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에셋이 축적한 30여년의 글로벌 헤리티지와 코빗의 전문성을 결합해 디지털자산의 다음 시대를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투자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지식과 정보, 통찰력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지능형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국내외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직접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신뢰와 내부통제도 거듭 강조했다. 박 GSO는 “컴플라이언스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정보보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장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상품은 미래에셋의 이름을 걸었다더라도 결코 세상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고객 자산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왔다. 코빗은 이날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난 22일 코빗 지분 91.7%를 확보한 데 이어 24일 나머지 5.42%를 추가 취득해 총 97.15%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 증권가 “삼양식품 주가, 실적 비해 저평가”

2분기 역대최대 실적 가능성  
한투·유안타·키움 등 매수 의견

삼양식품 주가가 견고한 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삼양식품 주가는 고점대비 30% 넘게 떨어졌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한 1천755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실적이 50%가량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파른 외연 확장 기조 속에서 인건비가 매출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 일회성 요인도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조정받겠지만 23%를 하단으로 선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밀양 2공장 생산량이 계획대로 올라오면서 2분기 생산량은 10% 확대됐고 연말 중국 자싱 공장 증설 전까지 추가 가동 시간 확대로 출하는 매 분기 늘어날 것”이라며 “3분기 미국에서는 일부 이연된 매출도 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7년 예상 P

ER이 14~16배인 일본 동종 기업들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기회”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5만원을 모두 유지했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2027년 중국 공장 가동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0만원을 유지했다.

DS투자증권도 삼양식품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0만원을 유지하며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다.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5만원을 제시하며 2분기 실적 매출액 7659억원, 영업이익 178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 상반기 국내 펀드 이익배당금 40조 돌파

전년대비 70% ↑… 재투자율 67%

올해 상반기 국내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이 4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지급된 배당금의 67%는 다시 같은 펀드에 재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40조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3조4699억원)보다 70.4%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6조793억 원으로 63.1%, 사모펀드는 33조9216억원으로 71.8% 각각 늘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는 공모 1680개, 사모 9225개로 집계됐다.

지급된 이익배당금 가운데 26조7961억 원은 해당 펀드에 재투자됐다. 전체 재투자율은 67.0%였으며 공모펀드는 94.3%, 사모펀드는 62.1%를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자가 어려운 부동산·특별자산형 펀드 비중이 높아 공모펀드보다 재투자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펀드 신규 설정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신규 설정액은 49조2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다. 공모펀드는 4조6333억원으로 97.1% 급증했고 사

〈2026년 상반기 이익배당금 지급 현황〉

| 구분       | 공모     | 사모      |
|----------|--------|---------|
| MMF      | 18,492 | 12,972  |
| 주식·주식혼합  | 20,713 | 68,798  |
| 채권·채권혼합  | 12,645 | 12,087  |
| 부동산·특별자산 | 778    | 74,196  |
| 기타       | 8,165  | 171,163 |

단위 : 억원

/한국예탁결제원

모펀드는 44조5958억원으로 26.9% 증가했다. 신규 설정된 펀드는 공모 151개, 사모 1547개였다.

청산분배금 지급액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청산분배금은 27조50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 늘었다. 공모펀드는 6463억원으로 8.0% 감소했지만 사모펀드는 26조8581억원으로 25.1% 증가했다. 청산분배금을 지급한 펀드는 공모 156개, 사모 1151개로 각각 13.0%, 45.1%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통계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발행 등록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형 펀드를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ETF와 외화표시 수익증권, 모펀드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 하나증권, IRP 1년 수익률 55%… 업계 1위

하나증권은 올해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하나증권 개인형 IRP 원리금비보장형의 1년 수익률은 54.91%, 3년 수익률은 23.33%로 집계됐다. 1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3개 분기 연속 증권업계 1위

를 기록했다.

장기 수익률에서도 상위권 성과를 보였다. 하나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의 10년 수익률 9.55%, 확정급여형(DB) 원리금비보장형의 10년 수익률 7.03%를 기록해 각각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허정윤 기자



# CVC 우회투자·SPC 꼼수보증 제동... 대기업 탈법 규제 강화

##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조합 통한 우회투자 차단  
SPC 매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친족분리 하점·사익편취 규율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활용한 우회 투자와 특수 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한 꼼수 채무보증 등 대기업집단의 범법 차단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대표적 맹점으로 지적되던 친족독립경영 제도 역시 개정돼 규제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사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열회사나 총수 일가 지분 회사의 투자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CVC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해 동일인 출자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규제 면탈'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해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제도로 보완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만 금지되다 보니, SPC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계열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사가 이 SPC의 채무를 인수하는 꼼수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보증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허점을 노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제동이 걸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후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계열회사 임원으로 복귀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를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했으며,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전, AI로 복지 누락가구 찾아 선제 발굴

국민연금·서울시복지재단 등 협약  
AI 전화 안내·무서류 신청 도입  
전력사용 분석해 부정수급 감시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선제적 에너지 복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서울시복지재단,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공공데이터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는 수혜 대상자가 직접 자격을 입증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복지 정보에 어두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취약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과 AI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지원하는 '선제적 복지 체계'로



한국전력공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으로 한전은 ▲AI 전화를 통한 대상 선제 발굴 ▲서류 없는 신청 ▲전력 사용량 AI 검증으로 이어지는 복지 지원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우선 유관기관의 행정 데이터와 한전의 고객 정보를 매칭해 복지 할인 누락 가구를 찾아낸 뒤,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돌봄 전화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AI 상담사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고객 특성별 맞춤형 복지 대화 시나리오도 공동 개발할 계획

이다.

복잡했던 신청 절차도 완전히 바뀐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고객이 단 한 번만 동의하면 증빙 서류 없이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검증되는 '서류 없는 신청'이 구현된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확인하던 현장 조사 방식에는 지능형 검증 체계가 도입된다. 한전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의 사업장 정보와 원격검침인프라(AMI)의 실시간 전력 사용 패턴을 AI로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 가구나 휴·폐업 복지시설을 상시 감시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수동적 복지의 한계를 데이터와 기술로 극복한 혁신 사례"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Energy AI 역량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해신항 조감도.

/부산항만공사·뉴시스

## 항만 하역부터 운영까지 AI가 맡는다

해수부, '피지컬 AI 항만 전략' 공개

정부가 국가 주요시설인 항만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이 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효과를 꾀하는 것. 해양수산부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공개했다.

피지컬 AI 항만은 크레인과 무인이송 장비 등 각종 하역 장비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차세대 스마트 항만을 가리킨다. 나아가 AI가 항만 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물류 흐름과 작업을 최적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가량 향상시키고, 항

만장비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아울러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피지컬 AI 항만 기술 기반 확보 ▲우리 기술 기반 항만·배후단지 혁신 ▲피지컬 AI 항만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도·이행 기반 정비 등이다.

우선 항만 크레인과 무인이송장비 등 하역장비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화 기술이 개발된다. 고위험 작업으로 꼽히는 컨테이너 고정장치 체결이나 선박 계류 작업까지 무인화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동시에 항만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광양항에는 기술 실증과 인증을 담당할 '첨단항만기술원' 설립도 추진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동백꽃 유산균 활용 탈모 완화 샴푸 상용화

국립생물자원관, 엑소좀 항염효능 규명  
염증 유발물질 생성 90%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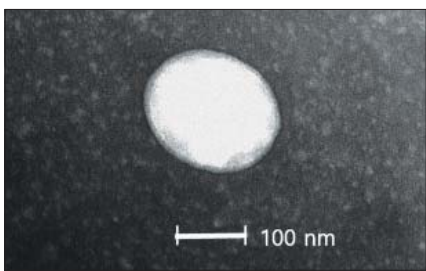
우리 자생 생물자원인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활용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샴푸가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가가 확보한 생물 자원 기술이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거쳐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진 모범 사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3일 자생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우수한 항염 효능을 규명하고, 해당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해 탈모 완화 샴푸 제품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김치 등 다양한 발효식품에서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유산균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배양액에서 추출한 세포 분비 나노 입자 성분인 '엑소좀'이 대표적인 염증 유발 물질인 산화질소와 사이토카인 IL-6의 생성을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단백질과 핵산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엑소좀이 탁월한 항염·항산화 기능성 소재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0월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된 신규 유산균 균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DB1 및 이의 엑소좀을 이용한 항염증용 조성물'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025년 11월 화장품 전문기업인 바오젠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보유 기술과 접목하면서 최종적으로 탈모 완화 샴푸 제품을 개발해 냈다. 바이오 기



유산균 엑소좀의 전자현미경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술과 민간 기업의 가공 역량이 시너지를 낸 해당 제품은 이달 중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개발 성과는 국가가 확보한 생물 자원의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제품 출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과 응용 연구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수원, 하반기 신입사원 229명 채용

대졸수준 지원서 내달 6일까지 접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확보를 위해 하반기 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22일부터 '2026년도 제3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총 선발 인원은 229명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199명을 선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별도 전형으로 보훈특별전형 20명, 사회형평전형 10명을 각각 나누어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나이에 제한이 없어 역량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8월 6일 오후 3시까지 한수원 채용 누리집(www.khnp.co.kr/recrui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수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대졸수준 신입직원 등을 포함해 총 263명의 신규 채용을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하반기 중 대졸·고졸수준 신입, 경력직 채용 등 추가적인 채용이 예정돼 있어, 올해 연간 채용 규모는 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http://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 잠들지 않는 한강... 서울시, 여름밤 체류형 명소 ‘탈바꿈’

여의도·독섬에 야영장 200동 마련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  
수영장·공연·영화·배달 할인 연계  
CCTV·24시간 순찰,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독섬 한강공원에 하루 최대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을 운영한다. 한강 수영장 야간 운영과 공연·영화, 배달 할인 등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강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강을 민선 9기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정하고 이동·여가·문화·먹거리·야영을 연계한 ‘24시간 한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한 달 동안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독섬한강공원 한강 풀풀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 ‘한강 밤팡’을 조성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이용자는 4인용 그늘막이나 텐트를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빌릴 수 있다. 야영장 이용료는 시범 운영 기간 무료지만 텐트 대여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용은



‘한강 무박 2일·밤샘 한강 ON’ 현장 모습.

/서울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연박과 취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야영장과 한강공원 내 수영장, 축제, 공연, 영화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의 야간 디제잉 프로그램 ‘뽕당뮤직’은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운영한다. 종료 시간도 기존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로 늦춘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8월 8일부터 매

주 토요일 오후 7~9시 야간 디제잉을 진행한다. 여의도·독섬 한강 수영장과 잠실·난지 물놀이장은 지난 3일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했으며 8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한강페스티벌\_여름’ 행사도 여의도와 독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42K’,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는 ‘무소음DJ 파티’, ‘한강다리 밀 영화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야간 이용객의 음식 주문을 위해 기존 한강공원 배달존 6곳에 여의도와 독섬 임시 야영장 주변 배달존 2곳을 추가한다. 새 배달존에는 외국어 안내문과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을 담은 QR코드를 설치한다.

8월에는 여의도·독섬·망원한강공원 배달존 8곳에서 배달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해 2만 5000원 이상 주문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 5000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2만 5000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배달전 용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할인쿠폰과 상품권 환급을 합치면 최대 8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배달존 인근 21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위치와 주요 정보도 한강공원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5~9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다화용기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참여하면 에코마일리지 지급한다. 배달앱 다화용기 사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500마일리지, 페트

병과 캔을 반납하면 개당 1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1000마일리지와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임시 야영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하고 나들목과 보행로 조명을 개선한다. 한강보안관과 공공안전관이 24시간 순찰하고 야영장에는 안내부스와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한다.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력도 별도로 투입한다.

망원·독섬·세빛섬 나들목에서는 공연과 전시도 열린다. 망원나들목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음악·마임·마술 공연을 진행하고, 독섬나들목에서는 8월 말부터 조각 전시와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세빛섬 나들목에서는 9월부터 신진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시 야영장 이용객 만족도와 야간 방문자 수, 평균 체류시간, 주변 상권 매출 변화 등을 분석해 향후 사업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inj@metroseoul.co.kr



metro

## 인하대, 한진정보통신과 AI·SW 인재 양성

2028학년도부터 계약정원 운영  
과정 이수 뒤 한진정보통신 채용 연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한진정보통신과 함께 2028학년도부터 AI·소프트웨어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정원을 운영한다. 선발 인원은 10명으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한진정보통신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최근 한진정보통신과 AI·SW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 정원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변봉섭 한진정보통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에 AI·SW 분야 계약정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교육과정과 정원 규모, 학생 선발 방식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에는 한진정보통신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 한진정보통신 소속 전문가를 산업체 멘토로 위촉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과 직무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AI·SW 분야 채용조건형 인재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계약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10명에게는 한진정보통신이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들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졸업 후 한진정보통신 채용과 연계한다.

인하대는 SW중심대학사업 등을 통해 운영해 온 AI·SW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진정보통신과 교과목 구성과 실무교육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한진정보통신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형 AI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변봉섭 한진정보통신 대표이사는 “대외 사업 확대와 AX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I·SW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인하대 학생들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채용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조건형 계약정원은 대학이 기존 학과에 기업과 약정한 정원을 추가로 두고,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당 기업 채용과 연계된다. 2023년 도입된 이후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와 건양대 유무인항공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대 대학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도 계약정원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재능 아동 꿈 키운다

아동 1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 지역 학업·예술·체육 분야 재능 아동에게 올해 총 8억 3000만원 규모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아동 1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12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26 서울 아이리더 멤버십데이 꿈 결에’를 개최한

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이리더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 등이 2023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금은 생활비로 일괄 지급하지 않고 아동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학업 분야에서는 교재 구입비와 인터넷 강

의 수강료, 예술 분야에서는 악기 구입비와 전문 레슨비, 체육 분야에서는 훈련용품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업·예술·체육 분야 아이리더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진로 고민을 공유한다. 국악 분야 학생의 대금 공연에 이어 분야별 학생들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진로·교육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진로 목표를 밝히고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이 지원을 약속하는 ‘꿈 서약식’도 열린다.

/이현진 기자

## 아시아 고소득 지역 기대수명 84.1세

고려대·경희대 연구팀  
남아시아 34년간 12.6년 증가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대수명이 2023년 84.1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기대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남아시아로, 34년간 12.6년 증가했다.

강지승 고려대학교 교수와 연동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 34개국의 기대수명 변화와 주요 원인을 분석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7월호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 제목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 기대수명 변화 요인 분석(Mapping drivers of life expectancy change in Asia from 1990 to 2023)’이다.

분석 결과 남아시아의 기대수명은 1990년 58.6세에서 2023년 71.2세로 12.6년 늘었다.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대수명은 같은 기간 77.5세에서 84.1세로 6.6년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7.1세, 남성은 81.0세였다.

기대수명 증가 요인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등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앙·동아시아에서는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혈관질환 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 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예방접종 확대와 식수·위생 환경 개선으로 설사성 질환과 호흡기 감염, 결핵에 따른 사망이 줄면서 기대수명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진 기자

## 미사섬, ‘생태·한류’ 품은 랜드마크로 변신

하남시, ‘K-한강 국가정원’ 구축

하남시가 미사섬 일대를 자연과 첨단 문화가 융합된 매머드급 힐링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고홀에서 개최된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미사섬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개발 구상을 공표하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전략의 핵심은 미사섬 전체 부지를 효율적으로 분할해 상호 시너지를 내는 모델이다. 전체 면적의 70%에는 한강 변의 독보적인 자연 생태계를 고스란히 살린 수도권 최초의 ‘K-한강

국가정원’을 올리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형 K-팝 공연장과 가상현실 및 영화 스튜디오 등이 집적된 ‘K-컬처 복합콤플렉스’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K-한강 국가정원’은 당장 신장 둔치 일대를 아우르는 5가지 테마 정원와 명품 탐방로로 채워진다. 이와 연계되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는 단순한 공연 시설을 넘어 글로벌 문화·영상 기업단지까지 유치해 하남을 한류 문화의 중심 기지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정부의 국정 기조 및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압박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식품업계, 다이소 ‘리얼필드’ 주목… 저가·소용량 신제품 경쟁

다이소, 간편식 등 식품매출 증가 부담없는 가격·다양한 라인업 주요 식품 제조사, B2B 유통전략 변화 단순 경로 넘어 테스트베드 활용

“혼자자취하는데 대형마트에서 간장이 나 양념장을 사면 반도 못 먹고 버리기 일쑤였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소용량 양념이나 통조림을 팔기 시작한 뒤로는 장보기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영등포구 거주 중인 직장인(37))

‘국민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알뜰한 식생활을 돕는 가성비 장보기 플랫폼이자, 식품업계의 ‘저가 식품 테스트베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주전부리용 과자나 초콜릿을 사러 가던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이제는 양념류와 간편식까지 아우르는 ‘실속형 마트’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 ◆ 견과류 73%·양념류 68% 폭증

엠브레인 구매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다이소 식품 카테고리 구매 추정액은 1823.8억 원으로



다이소 식품 코너에 진열된 상품 모습.

전년 동기(1599.2억 원) 대비 14.0% 증가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담 없는 가격대의 식품을 찾는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구매액 기준으로는 박스과자(458.8억 원), 봉지과자(425.1억 원), 초콜릿(196.1억 원)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스과자와 봉지과자를 합산한 금액은 883.9억 원으로 전체 식품 구매 추정액의 약 48.5%에 달해 여전히 간식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성장률’이다. 성장

률 기준으로는 건·견과류가 전년 대비 73.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양념류(68.4%), 어포류(51.0%), 즉석 조리식품(47.7%), 주스(42.2%), 통조림·반찬(40.7%) 등이 뒤를 이었다.

건·견과류와 어포류는 간식·안주용으로, 양념류와 즉석조리식품·통조림은 집밥 보조용으로 주로 활용된다. 다이소가 단순 디저트 구매처에서 생활형 식재료를 함께 구매하는 장보기 채널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원선 기자

## ◆ 식품업계 최적의 테스트베드

이같은 흐름은 식품 제조사들의 B2B 유통 전략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식품업계에 다이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판로를 넘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리얼 필드(Field)’로 재해석되고 있다.

1000~2000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과 소용량 패키지 특성 덕분에 소비자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선뜻 신제품을 집어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이소 전용 소포장 상품을 늘리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이소 측은 “생활용품을 구매하려는 1인 가구가 식품도 구매하면서 식품 매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골목 장보기’ 채널로 진화

전문가들은 고물가 기조와 1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 다이소의 ‘소포장 식생활 플랫폼’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다이소의 경쟁 상대가 문구점이나 소품점이었다면, 이제는 골목 상권을 점유했던 편의점(CU·GS25 등)이나 중소형 마트(SSM)의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필요한 식품을 소량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하려는 합리적인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한 번에 대량으로 장을 보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품목만 수시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간편식과 소용량 식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신세계百 AI 기술, 세계적 AI 학회 논문 선정

서울대 공동연구… 초개인화 고객 분석 내년 초 ‘AI 세일즈 에이전트’ 도입 예정

신세계백화점은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AI 기반 초개인화 고객 분석 기술이 세계적인 AI 학회인 국제 머신러닝 학회(ICML)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 업계의 산학협력 연구 결과가 ICML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신세계백화점과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약 1년간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양측은 AI·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유통 기술 개발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적한 약 2억 건의 쇼핑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AI Ready Data’를 개발했다. 이 데이터 체계는 구매 이력뿐 아니라 방문 패턴과 관심 브랜



AI 세일즈 에이전트 관련 가상 이미지 /신세계

드 등 다양한 쇼핑 정보를 AI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별, 연령, VIP 등급 중심 고객 분석을 넘어 고객 개인의 구매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

다. 신세계백화점은 향후 상품 추천뿐 아니라 여행,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년 초 ‘AI 세일즈 에이전트(AI Sales Agent)’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영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객 특성과 구매 패턴, 상품 운영, 프로모션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업무용 AI 분석 도구다.

AI는 고객의 구매 이력과 선호도, 방문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고객별 맞춤 상품과 행사, 여행·문화 콘텐츠 등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과 영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객단가가 최대 46%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CJ제일제당, K-증류주 ‘jari’ 알린다

‘서울바앤스피릿쇼’ 참가

CJ제일제당이 K-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를 앞세워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주류 박람회에 참가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바앤스피릿쇼’에 ‘jari’ 브랜드로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바앤스피릿쇼’는 위스키를 비롯한 다양한 증류주와 바(Bar) 문화, 페어링 푸드 등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주류 박람회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람회에서 ‘Moment(순간)’를 콘셉트로 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자리 문배술 24’와 ‘자리 가무치 24’를 시음할 수 있으며, 전통 옹기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했다.

또 박람회 특별관인 ‘인피니티 바(The Infinity Bar)’의 골드 스폰서로 참여한 다. 특별관에 참여하는 약 30개 바에서는



‘jari’ 부스 렌더링 이미지.

/CJ제일제당

‘자리 문배술 24’와 ‘자리 가무치 24’를 활용한 각테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SNS 인증 이벤트와 경품 게임 등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CJ제일제당은 최근 ‘jari’ 론칭 행사에서 ‘자리 문배술 24’와 ‘자리 가무치 24’를 공개했다. 두 제품은 문배주양조원, 다농 바이오와 협업해 충남 논산 전용 시설에서 숙성한 프리미엄 증류주다.

CJ제일제당은 올가을 미국 시장에 ‘jari’를 출시하며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더본코리아 홍콩반점 ‘애호박찌개짬뽕’ 신메뉴

더본코리아의 중식 브랜드 홍콩반점 0410(이하 홍콩반점)은 ‘팔도 홍콩반점 프로젝트’의 두 번째 메뉴로 광주 향토 음식인 애호박돼지찌개를 재해석한 ‘애호박찌개 짬뽕’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메뉴는 애호박돼지찌개를 바탕으로 돼지고기와 채 썬 애호박을 넣어 만든 짬뽕이다. 애호박의 단맛과 돼지고기의 감칠맛, 칼칼한 국물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홍콩반점은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애호박찌개 짬뽕’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한정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 G마켓, PLCC ‘지마켓 꼭 현대카드’ 출시

‘꼭 멤버십’ 연계… 적립 혜택 강화

G마켓이 23일 현대카드와 손잡고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지마켓 꼭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꼭 멤버십 회원은 카드와 멤버십 혜택을 합산해 최대 12%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카드는 G마켓과 현대카드가 선보이는 네 번째 PLCC다. 양사는 2018년 ‘스마일카드’를 시작으로 ‘스마일카드 에디션2’, ‘스마일카드 에디션3’를 출시했으며, 이번에는 G마켓의 ‘꼭 멤버십’과 연계해 혜택을 강화했다.

카드는 G마켓과 육선 이용 시 결제금액의 7%를 스마일캐시로 적립해준다. 월

적립 한도는 1만4000원이다. 이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는 전용 이용금액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 한도 없이 결제금액의 0.7%를 스마일캐시로 적립한다.

꼭 멤버십 회원은 카드 적립 최대 7%에 멤버십 적립 최대 5%를 더해 최대 12%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카드와 멤버십 혜택을 합산한 월 최대 적립액은 8만4000원이다.

출시를 기념해 8월 31일까지 ‘꼭 멤버십 구독료 지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카드를 발급받아 꼭 멤버십 구독료를 정기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구독료를 스마일캐시로 환급해준다.

/김서현 기자

## 하이트진로, ‘마이 패이보릿 진로’ 캠페인

뷔와 함께 일상 속 진로 경험 전달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앰배서더인 방탄소년단(BTS) 뷔와 함께하는 첫 글로벌 캠페인 ‘마이 패이보릿 진로(My Favorite JINRO)’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진로(JINRO) 브랜드를 알리고, 일상 속에서 진로와 함께하는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는 23일 메인 광고 영상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을 국내외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메인 광고는 파티에 초대받은 뷔가 장

소를 작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로 다른 두 파티의 참석자들이 함께 진로를 즐기는 내용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브랜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에는 진로의 글로벌 사업 전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도 담았다. 영상 속 객실 번호 306호는 현재 해외에서 판매 중인 레귤러 소주 3종과 플레이버 소주 6종을 의미하며, 307호는 플레이버 소주 라인업을 7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상징한다. 광고 영상은 진로 글로벌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공장 풀가동·환율 효과’… 삼바, 상반기 영업이익 1조 돌파

2분기 매출 1.3조·영업익 5864억  
상반기 누적 매출 2.6조, 28% 증가  
대규모 투자에도 영업이익률 45%  
5공장·美 록빌 하반기 실적 기여  
2032년 생산능력 132만L로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공장의 전면 가동과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반기 가동을 앞둔 신규 생산 시설 투자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에도 4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내실을 모두 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209억원, 영업이익 5864억 원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2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 4307억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실적은 누적 매출 2조5780억원, 영업이익 1조1672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28%, 영업이익은 29% 커진 우상향 성장세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89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

누적 영업이익률은 45.3% 수준이다. 전년 동기 45.1% 대비 0.2%p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될 때 수익성이 둔화하는 일반적인 제조업 흐름을 방어, 기존 사업의 호실적으로 초기 고정비를 상쇄했다는 분석을 내

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일부 생산 차질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국내 5공장 및 미국 록빌 시설의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치(15~20%)의 최상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초격차 생산 역량 유지 및 지리적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미국 록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로부터 인수해 첫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록빌 시설 인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1~5공장에 구축한 78만 4000리터(L)의 생산능력에 6만 리터(L)를 추가, 총 84만 5000리터(L)에 달하는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 내 6~8공장을 순차적으로 완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총 생산능력은 132만 4000리터(L)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 활동도 강화한다.

창립 이래 누적 주주 총액은 217억 달러 규모다. 위탁생산(CMO) 115건, 위탁개발(CDO) 176건 등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20위 빅파마 중심의 기존 고객층을 40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세일즈 오피스를 신설한다. 2023년 미국 뉴저지, 2025년 일본 도쿄에

이어 현지 맞춤형 영업 전초기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3대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작업도 순항 중이다. 대표 품목인 항체 의약품을 넘어 최근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결정짓는 등 비만, 당뇨 등 차세대 치료제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mRNA,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첨단 의약품 부문에서도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해당 신규 모달리티 생산 시설은 제3 바이오캠퍼스를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은 12조6526억원, 자본은 8조3619억원, 부채는 4조2907억원이다. 부채비율은 51.3%, 차입금 비율은 11.5%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나보타 불법 유통 차단 강화

대응계약, 정품 유통망 관리체계 정비  
적발 업체 즉시 영구 거래중단 조치

대응계약이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관리 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환자 안전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응계약은 온·오프라인에서 나보타 정품 유통망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불법 유통 적발 시 즉시 거래를 영구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병·의원 대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계약서 개정을 완료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무단 반출 적발 시, 제조번호 추적, 해당 의료기관 특정 후 즉시 거래 중단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응계약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식품의약품(FDA) 수입 거절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이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경로를 거친 제

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계약 관계자는 “공식 수출 제품은 FDA 규정을 준수하므로 수입 거절 이력이 없다”며 “제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미국에 반입될 때 ‘영문 라벨 미가제’ 혹은 ‘NDA(신약허가신청) 미승인’ 등의 수입 거절 사유가 조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응계약은 올해 초 보툴리눔 독신 불법 유통으로 미국 FDA의 경고서한을 받은 국내 업체 7곳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신고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약사법을 비롯한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 기업의 권한만으로는 위법 사실을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조사 개시를 위해서는 불법 유통 업체의 명확한 범인명, 특정 시점의 제품 거래, 한국발 통관 및 발송 기록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청하 기자

## GS샵, 역시즌 패션 주문 375% 급증

5월~7월19일 주문액 190억

GS샵은 고물가 속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이 늘면서 역시즌·창고 할인 패션 행사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할인 폭이 큰 시기를 활용해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가 늘고 있다. 역시즌 행사와 창고 할인 등을 통해 겨울 의류를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GS샵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 역시즌 겨울 패션 행사 주문액은 1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행사 주문액(40억원)보다 375% 증가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코트와 무스탕 등



GS샵이 20일 진행한 ‘SJ와니’ 창고 세일 방송 중 주문액이 14억 원을 기록했다. /GS샵

겨울 의류를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별로는 ‘르네크루’, ‘SJ와니’, ‘쑈울’ 등 GS샵 자체 패션 브랜드가 주문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HLB이노베이션, 혈액암 신약 美 임상 확대

고용량 투여 안전성 확인

HLB이노베이션은 차세대 혈액암 CAR-T 후보물질 ‘SynKIR-310’의 미국 임상1상에서 더 높은 용량 구간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용량군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임상은 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상업화된 CD19 CAR-T 치료 후 재발한 환자까지 포함해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인 환자군에서 SynKIR-310을 평가한다.

이번 용량 확대는 기존 CAR-T 치료제의 일반적인 투여 용량 범위를 넘어선 고용량 구간에서 이뤄졌다. 기존 CAR-T 치료제의 안전성을 능가할 수 있는 SynKIR-310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2상 권장 용량 설정을 위한 임상 근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연창환 라플레 대표(왼쪽)와 김재왕 지씨셀 대표(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씨셀

지씨셀

## 면역치료 예측 AI 개발

라플레와 5700건 처방데이터 분석

지씨셀은 라플레와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 치료 적합성 및 예후 예측을 위한 AI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라플레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문셀엘씨주’ 예후 예측 AI 프로그램 고도화와 실용화다.

라플레 협력 의료기관인 연창환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5700건에 달하는 ‘이문셀엘씨주’ 처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방데이터(RWD) 기반의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플레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면역세포치료를 통한 환자별 반응률을 예측해 최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하는 데 쓰인다. /이청하 기자

## 지그재그, 동대문 ‘도매택’ 상품 수요 급증

인기 생산업체 거래액 30% 이상 증가

키카오스타일 지그재그에서 동대문 생산업체의 이른바 ‘도매택’ 상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매택은 동대문 도매 상품을 뜻하는 말로,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풍물을 대상으로 유통된다. 최근에는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그재그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도매택 상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기 생산업체의 제작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별도의 소비자 판매 채널이 없는 도매 상품 특성상 이용자들이 지그재그에서 생산업체명을 직접 검색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검색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직장인특과

하객룩 등을 선보이는 ‘트버터’의 상반기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해 약 30만 건을 기록했으며, 관련 상품 거래액은 50% 늘었다. 디테일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알려진 ‘미엘’도 같은 기간 검색량 20만 건, 거래액 44% 증가를 기록했다.

여름 바수기에도 성장세는 이어졌다. 최근 한 달(6월 20일~7월 19일) 동안 파운더스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고, 관련 상품 거래액은 282% 늘었다.

도매택 상품의 인기는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생산업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매 편의성도 높아졌다. 현재 지그재그에는 도매택 상품을 취급하는 소풍물 200여 곳이 입점해 있으며, 생산업체명을 검색하면 여러 소풍물의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29일 비전공자 대상 입문특강 시작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설 AI신약연구원은 오는 29일 입문특강 ‘AI 신약개발 따라잡기’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신약개발 따라잡기’는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신약개발의 핵심 개념, 최신 기술 동향, 산업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청하 기자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버거에 파인애플을

WHY?

단짠 조합으로 맛있게

HAWAII!!



By chef 벵딱한 천재

하와이안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현대차그룹, 브라질 사회공헌 늘린다… 환경·의료 집중

숲 복원·이동 치과진료 확대  
한·브라질 관계 강화 힘 보태

현대자동차그룹이 브라질에서 환경·의료·문화·교육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로 현지 사회와의 동반 성장에 앞장선다. 현지 생산 거점이 있는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산림 복원과 이동식 치과 진료 등을 강화해 브라질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회공헌 활동 확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 정 회장은 앞서 2024년 루이스 아나시우 톨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32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투자와 사회공헌을 병행해 브라질 사회에 기여하고 한·브라질 관계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대차의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인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지속 전개한다. 앞서 현대차는 2022년부터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에 참가한 브라질 자원봉사자들이 프로젝트 대상지에서 파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올해 상반기까지 브라질 마나세라이스주와 상파울루주 일대에 나무 10만그루를 심어 총 40ha(헥타르) 규모의 숲을 복원했다. 앞으로 파라시카바 등 사업장 인근 지역으로 사업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원 지역에는 브라질 대서양림의 자생종을 복원하고, 이후에도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산림 복원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나무와 농작물을 한 땅에서 함께 기르는 친환경 영농 방식인 '혼농임업'도 도입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현대차 브라질 법인이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이동식 치과 진료 사업 '소리소시다다우'의 활동 반경을 넓힌다. 치과 전문의 등 의료진이 진료장비를 갖춘 트레일러를 타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찾아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 간단

한 수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공 안전 분야 종사자와 지역 기관 관계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 5월까지 누적 진료 건수는 8만3000여 건에 달한다. 올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4곳과 학교 15곳 이상, 경찰서·소방서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현대글로비스는 2023년부터 진행한 '한국 영화제'를 올해도 열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와 박찬욱 감독의 '아찔 수가 없다' 등을 상영한다. 파라시카바 교향악단을 후원하고 클래식 콘서트와 현지 아동·청소년 대상 유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오트모에버는 파라시카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을 강화한다. 브라질 법인의 실무자와 관리자들이 직접 참여해 IT 분야의 업무를 소개하고 진로 설계와 직무 역량 향상을 돕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NHN, 한중 바둑훈련에 AI '한돌' 지원

NHN은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제19회 한중 청소년스포츠큐' 바둑 종목 합동훈련에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한돌(HanDol)'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NHN은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제19회 한중 청소년스포츠큐' 바둑 종목 합동훈련에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한돌(HanDol)'을 제공했다. /NHN



교촌치킨, 'K-치킨 체험 스쿨' 운영

교촌에프앤비는 초복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치킨 체험 프로그램 '교촌1991스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가 초복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 '교촌1991스쿨'을 운영하며 K-치킨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교촌에프앤비



'2026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2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박덕흠 국회의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허용주회장,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기계설비의 날'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현동수·박계석 대표 대통령 표창

11화재인 '2026 기계설비의 날'에 동원설비 현동수 대표, 세랑테크 박계석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귀뚜라미범양냉방 김래형 전무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허용주 기계설비의 날 조직위원장은 "기계설비업계는 친환경·고효율·모듈러화·스마트 건설이라는 네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기계

설비의 날 행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500여명의 기계설비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계설비의 날'은 77만 기계설비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자리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 성일종·복기왕·정일영·김남근·손명수의원등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7월 24일(금)

음력 : 6월 11일

수도권 날씨

24 ~ 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23/26

파주 23/29

연천 23/29

동두천 23/29

가평 23/29

서울 24/29

양평 24/30

인천 24/28

수원 25/29

용인 25/29

평택 25/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코웨이 블루월스, 휠체어농구대회 우승컵

김영무 감독 '우수감독상'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월스'가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국제조정휠체어농구대회에서 우승하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입증했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농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대회로, 코웨이블루월스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춘천타이거즈 등 국내 팀 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내

외 7개 팀이 출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코웨이 블루월스는 예선 리그에서 수원 무궁화전자와 대구광역시청을 각각 65대 38, 97대 60으로 대파하며 조 1위로 순조롭게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홈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맞붙어 최종 스코어 65대 59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코웨이 블루월스는 이번 대회에서 김영무 감독이 우수감독상을, 곽준선 선수가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하며 팀과 개인 모두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호 기자

## 삼육대, 외항사 승무원 실전트랙 과정 성료

고용노동부 특화 프로그램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외국항공사 객실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파이널 보딩: 외항사 승무원 실전트랙 과정'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과정에는 삼육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2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4주간 총 66시간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BYD코리아, 맨시티 방한 이벤트 개최

BYD코리아가 다음달 한국을 찾는 '괴물 공격수' 엘린 홀란드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YD코리아는 글로벌 파트너인 맨체스터 시티 FC의 방한을 맞아 전국 34개 전시장에서 친선 경기 티켓 증정 등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BYD 씨라이언 6 DM-i. /BYD코리아



한식진흥원,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앞장

한식진흥원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식 확산 및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식 확산 및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식진흥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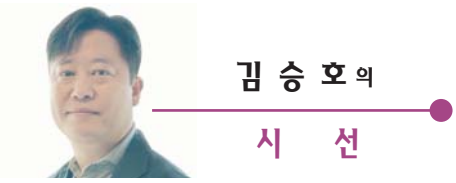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리니언시와 면죄부



김승호의  
시선

제지업계 국내 1위인 H사는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2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맞았다. 업계내 5개사와 함께 인쇄 용지 가격을 담합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H사 뿐만 아니라 M그룹 계열사 3곳도 담합에 가담해 총 138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H사, 세곳의 M사 등 6곳의 제지회사에 내려진 과징금은 총 3383억원에 이른다.

이들 제지사의 담합 과정은 아주 치밀했다. 개별 회사 관계자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 기 위해 경쟁사를 이니셜로, 담당자 연락처는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종이에 가명 등으로 메모해 사용했다. 연락할 땐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다. 적어도 60회 이상 회합한 과정은 첩보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이 부과했던 H사는 이후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M사 역시 총 517억원을 면제받았다.

‘자진신고감면제’로도 불리는 리니언시 제도의 덕을 봤기 때문이다. H사가 1순위, M사가 2순위로 자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사이 공정위는 ‘은밀한 담합’을 포착한 직원에게 포상까지 했다. 리니언시로 인해 당초 3383억원이었던 과징금이 1441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리니언시를 이용한 기업들의 과징금 회피는 이번 인쇄용지건 뿐만 아니라 설량 담합, 밀가루 담합 등 최근 사례만해도 적지 않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라는 정부의 성과 뒤엔 늘 ‘엄청난 과징금 감면’이라는 기업의 성과가 보란듯이 뒤따른다. 같이 담합을 하고도 약삭빠르지 못한 기업만 고스란히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다.

현행 리니언시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담합으로 돈을 버는 곳은 짜고 치는 기업들이다. 이들의 담합으로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담합으로 종이값은 3년 10개월동안 71%나 올랐다. 피

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인쇄용지 값이 오르면서 단행본, 교과서, 잡지 등을 사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더 높은 가격에 용지를 구입, 인쇄해 납품한 중소기업들도 피해자다.

그런데 담합으로 많은 돈을 번 기업들은 잘못을 하고도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를 인식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지난해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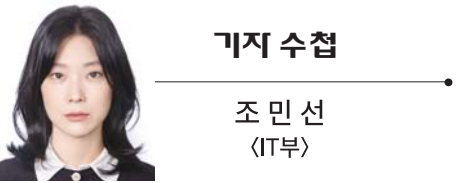
개정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7년부터 도입한 리니언시가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이 담합해 결국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뒤에선 웃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같은 것인진 모르겠다.

/bada@metroseoul.co.kr

## ‘내 정보는 이미 털렸다’는 체념



기자수첩  
조민선의  
(IT부)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낯선말이 아니다. 누구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사고는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보안 원칙이다. 기업은 끊임없는 검증 통해 각종 자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보안 유지에만 수조원이 드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보호 대상인 개인은 ‘정보 제공’을 가법계 여긴다.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는 것을 단순한 과정으로 치부한다. 택배 송장에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 이름까지 적혔지만 굳이 제거하지 않는다. 지난 한해 통신 3사에서 발생한 초유의 해킹 사건을 두고는 ‘내 정보는 벌써 중국에 있다’며 자조 섞인 농담도 나왔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해킹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2008년 개인정보 약 1800만건이 유출된 이커머스 옥션 해킹 사건,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3500만), 최근 SK텔레콤(2700만), 쿠팡(3750만)까지 모두 중국인 또는 중국 국적의 해커 소행으로 밝혀지거나 이들이 배후로 지목됐다.

한국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보다 공공의 목적을 우선하는 인식이 강했다. 대표적인 예가 주민등록번호다. 군부 정권 당시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12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전국민이 갖게 됐다.

인터넷이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즈음 교육청이 포털 사이트 가입을 강제해 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적어 제출하게 했다.

이달 시행한 휴대폰 안면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추진된 것 또한 오래 지속된 집단주의적 인식의 연장선이다. 국민의 금전적 피해를 일으킨 대포폰 개통 및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지는 취지지만,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 스캔 과정에서 얼굴 영상을

한번 더 촬영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이보다 빠른 2019년에 안면 인식을 의무화했다.

다만 정보 주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2011년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대전제는 내 정보를 타자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결정과 통제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번 안면인증제 또한 시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산하 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가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일부 반영하겠다고 했다.

해킹을 완벽히 막을 기술은 아직 없지만 최소한 예방은 가능하다. 내 정보는 이미 털렸다는 체념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의지가 필요한 때다.

/msjo@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7월 24일 (음 6월 11일)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세요. 60년생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2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세요.

49년생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61년생 하루하루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둡니다. 73년생 귀하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85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입니다.

50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합니다. 62년생 수술하면 암종류이고 상복수 있겠습니다. 74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세요. 86년생 아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1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을것입니다. 63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7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7년생 말 조심 몸 조심하세요.

52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4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76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집니다. 88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53년생 평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65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77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의 것을 잘 간수하세요. 89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54년생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매사에 주의하세요. 66년생 조용히 근신하세요. 78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90년생 귀인을 만나려면 동쪽으로 가세요.

55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세요. 67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9년생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91년생 음식을 삼가 해야 합니다.

56년생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것입니다. 68년생 조금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0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92년생 남을 돕는 것이 길합니다.

57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지출이 있게 됩니다. 69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81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93년생 무엇을 하던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5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70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94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59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71년생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83년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세요. 95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시한번 돌아보세요.

## 김상회의 四季 원진살 중화방법

백년해로하는 부부들은 대단한 인연이다. 인간사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고 전통적인 결혼은 아내, 여자의 인내와 인고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하였기에 과거 시대에는 백년해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요즘은 참으면 바보인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여성들 처지에서는 다행인 것인지 아닌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촌수가 무촌이라는 부부는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쌍방에게 고통이 된다. 배우자에게 성실치 못하여 바람을 피우거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파탄이 나는 경우가 부부 파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실은 싸움이 일어나도 그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도 감정이 극한을 달려서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이 앞섰다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한 번쯤 공감해 봐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선 너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판단과 비난을 하는 말로 일관되니 관계가 극한을 달려서 화합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꼭 부부지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년 전에 갑자기 결혼하게 된 아들의 공합을 보러 온 K여사의 아들과 며느릿감 공합은 추천할 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가씨 쪽의 적극적인 태도로 결혼이 성사되었었는데, 당시 필자가 우려를 표한 대로 안타깝게도 이후의 처지가 되었다. 일단 부부지간에 원진살이 있으면 주말부부나 해외 근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 싸움으로 날밤을 새우기도 한다. 아가씨 일주가 입술로써 백호 살이 있기도 했지만, 돼지띠에 배우자 자리에 원진살(兇鎗殺)이 있어 부부가 원수지대 지내는 기운이다. 이런 경우 남편이 지방 근무나 해외 근무라면 그렇지않 지낼 수도 있다. 딸싸움이 심해져 극단을 치닫게 된 경우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959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2063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6 | 2 |   | 3 |   |   |   | 7 |   |
| 9 |   |   | 1 |   | 5 | 6 |   |   |
|   |   |   | 9 |   |   |   |   |   |
|   | 4 |   |   |   | 2 |   | 1 |   |
| 2 |   |   |   |   |   |   |   | 4 |
|   | 7 |   | 5 |   |   |   |   | 9 |
|   |   |   |   |   | 1 |   |   |   |
|   |   | 2 | 7 |   | 8 |   |   | 5 |
|   | 3 |   |   | 9 |   | 2 | 6 |   |

|   |   |   |   |   |   |   |   |   |
|---|---|---|---|---|---|---|---|---|
| 8 |   | 3 | 9 |   |   |   |   | 5 |
| 9 |   |   |   |   |   | 2 |   | 6 |
|   |   |   |   | 2 |   |   | 9 |   |
|   |   |   | 4 |   | 5 |   |   |   |
|   | 7 | 1 |   |   |   | 8 | 3 |   |
|   |   |   |   | 7 | 8 |   |   |   |
|   | 9 |   | 5 |   |   |   |   |   |
| 3 |   | 7 |   |   |   |   |   | 9 |
|   | 4 |   |   | 9 | 6 |   | 7 |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9 | 2 | 1 | 6 | 9 | 1 | 8 | 8 |
| 9 | 8 | 1 | 8 | 9 | 2 | 6 | 1 |
| 6 | 8 | 1 | 8 | 2 | 1 | 9 | 9 |
| 8 | 6 | 2 | 8 | 1 | 9 | 1 | 1 |
| 1 | 9 | 8 | 1 | 8 | 6 | 9 | 2 |
| 1 | 1 | 9 | 2 | 6 | 9 | 8 | 1 |
| 8 | 9 | 8 | 9 | 2 | 6 | 1 | 1 |
| 2 | 1 | 9 | 9 | 1 | 1 | 8 | 6 |
| 1 | 1 | 6 | 1 | 8 | 8 | 9 | 2 |

|   |   |   |   |   |   |   |   |   |
|---|---|---|---|---|---|---|---|---|
| 1 | 1 | 9 | 6 | 8 | 8 | 2 | 1 | 9 |
| 6 | 2 | 9 | 1 | 1 | 9 | 1 | 8 | 8 |
| 8 | 8 | 1 | 2 | 9 | 9 | 6 | 1 |   |
| 1 | 9 | 1 | 8 | 8 | 1 | 6 | 9 | 2 |
| 9 | 8 | 8 | 9 | 6 | 2 | 1 | 1 | 1 |
| 2 | 1 | 6 | 9 | 1 | 1 | 8 | 8 | 9 |
| 8 | 6 | 8 | 2 | 9 | 1 | 1 | 9 | 1 |
| 9 | 1 | 2 | 8 | 1 | 8 | 9 | 1 | 6 |
| 1 | 9 | 1 | 1 | 9 | 6 | 8 | 2 | 8 |



# 깊은 바다에서 숙성한 샴페인의 맛은... 드라피에 이멀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6

해저 수심 50m 아래에서 발견된 난파선 한 척. 그 안에서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 전 만들어진 와인이 썩어있었다. 다들 한 번쯤은 접해봤을 기사다.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와인의 맛은 어땠을지, 아니 마실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다. 놀랍게도 발트해에서 발견된 19세기 샴페인 가운데 일부는 마실 수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기포도 남아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온도는 낮게 유지됐고, 와인을 상하게 하는 빛의 존재는 아예 없었다. 수입에 눌러 코르크 밀봉 상태로 완벽했다. 와인 보관에 이상적인 조건인 셈. 사고나 이벤트가 아닌 의도적으로 바닷속에서 와인을 숙성시켜 보자는 샴페인 하우스가 나타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샴페인 하우스 드라피에(Drappier)다.

드라피에는 프랑스 상파뉴에서도 코뜨 데 바(Cote des Bar) 지역에 자리잡은 샴페인 하우스다. 1808년 우르빌 마을에 정착한 이후 200년이 넘게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8세대까지 경영에 합류했다.



왼쪽부터 까르뜨 도르 브뤼트 NV, 까르뜨 도르 이멀전 NV, 로제 브뤼트 NV, 그라아드 상드레 2015, 밀레지 엑셉션 2019. 해저숙성 샴페인이 까르뜨 도르 이멀전이다. 보틀에도 바다 숙성에 따른 잔여물이 남아있다.

/안상미 기자



코뜨 데 바는 상파뉴의 남쪽 끝이다. 많이 아는 랑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상파뉴 중심부보다 부르고뉴 사블리와 가깝다.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토양 역시 사블리와 같이 조개껍질이 섞인 석회암인 키펀데리안이다. 이 때문에 상파뉴 다른 곳과 미네랄 느낌의 결이 달라진다. 보통 분필같은 미네랄이라고 한다면 코뜨 데 바에서 만든 샴페인은 짭짤한 미네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저숙성의 맛을 비교해볼 차례다.

선택받은 와인은 드라피에의 대표 샴페인 '까르뜨 도르(Carte d'Or)'다. 드라피에 스타일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샴페인 하우스 드라피에의 브랜드 앰버서더인 주재민 소를리에가 까르뜨 도르 등 드라피에 샴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CSR

까르뜨 도르는 프랑스어로 황금카드란 말로 행운을 불러오는 샴페인이란 의미다.

'까르뜨 도르 브뤼트 NV'는 피노누아로 유명한 하우스답게 피노누아 80%에 샤르도네 15%, 그리고 뫼니에를 일부 섞었다. 숙성 기간은 3년이다.

코에서는 모과향과 함께 살짝 생강향이 스치고, 입 안에서는 피노누아의 골격과 풍성한 과실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숙성에 따른 효모 느낌은 절제됐고, 버블 질감은 부드럽다.

'까르뜨 도르 이멀전 NV'는 까르뜨 도르를 해저에서 3년을 더 숙성시켰다. 같은 샴페인인데 숙성 장소만 전통 셀러와 해

저로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산미다. 까르뜨 도르가 피노누아 중심으로 만든 샴페인의 둥근 산미라면 이멀전은 산도 자체가 더 높아 경쾌하고 여운도 길다.

드라피에 브랜드 앰버서더 주재민 소를리에에는 "숙성 환경이 샴페인의 질감과 표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기 위한 드라피에의 실험"이라며 "일반 까르뜨 도르가 클래식한 피노누아 스타일이라면 해저숙성 까르뜨 도르는 더 차분한 질감, 신선함과 미네랄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저숙성은 빛과 온도 등 와인에 가해질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며 "파도에서 오는 반동으로 병 안에서 주스와 효모가 지속적으로 섞이면서 질감과 함께 복합미가 더해진다"고 덧붙였다.

숙성 방식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가격이다. 해저 숙성에 따른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이멀전이 기본 까르뜨 도르보다 비싸다.

드라피에는 숙취없는 샴페인으로도 알려져있다.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두통을 유발하는 이산화황을 거의 쓰지 않아서다. 드라피에 가문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이산화황에 예민했던 덕분이다. 이제 마음껏 마실 일만 남았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 문화 단신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콘서트 12K로 본다

롯데시네마, VR 콘서트 단독상영 체험형 공간, 음향 특화관 활용 공식 굿즈 판매, 포토존 운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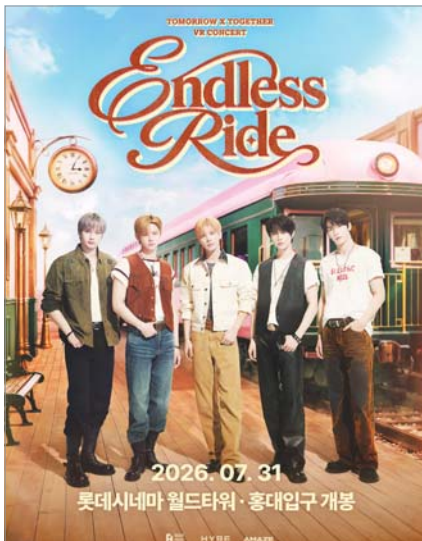
롯데시네마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세 번째 VR 콘서트를 단독 상영한다. 체험형 공간과 음향 특화관을 활용한 관람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31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VR 콘서트 : 엔드리스 라이드(TOMORROW X TOGETHER VR CONCERT : ENDLESS RIDE)'를 단독 개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12K 초고해상도 VR 기술을 적용한 콘서트 콘텐츠다. 상영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와 흥대입구에서 진행된다. 월드타워점에는 콘서트 콘셉트에 맞춘 체험 공간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흥대입구점에서는 음향 특화관인 '광음시네마'에서 상영한다. VR 콘텐츠를 광음시네마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시네마는 개봉을 기념해 스위트샵(매점)에서 공식 굿즈를 판매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차별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자



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교통철학자가 진단한 한국 도시의 고립

기후변화시대 그린 '철도 삼부작' 고립된 한국 철도와 해결책 제시

교통철학자 전현우가 유서 깊은 주요 도시에 위치한 '외톨이 역'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서적 '외톨이 역을 떠나며'를 출간했다.

민음사가 내놓은 '외톨이 역을 떠나며'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외톨이 역'이 자동차 접근 위주로 대중교통이나 보행 공간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 더 넓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고립이 에너지 위기, 지역 쇠퇴,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탐구한 뒤 이를 위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저자는 교통 철학자로서 한국 도시의 현장 조사와 철학적 성찰을 결합하고 유럽 및 미국 철도 시스템과의 유사점도 도출한다.

예를 들어 포항, 경주, 광주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보행자 접근, 대중교통, 도심과의 단절 등으로 자동차 이동을 필수화하는 '외톨이 역' 현상을 비판한다. 또 이 동성의 미래, 철새와 비행기 간의 잠재적 충돌, 지역 주민과 세계 자본주의 간의 경쟁에 대한 질문도 제기한다.

특히 저자는 광주와 부산 간 직통 KTX 서비스의 부재와, 경상도와 전라도 간 이동에 필요한 불편한 경로에 대해 의문



외톨이 역을 떠나며

전현우 지음/512쪽/민음사

을 제기하면서 기차역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는 추세를 비판한다.

해결책도 제시한다. 이 책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지역 쇠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기 시간표'에 기반한 국가 철도망 재편 계획을 제안한다.

이 책에는 사용 편의성을 위해 펼침 제본으로 제공되는 130개 이상의 지도와 인포그래픽, 전국 철도망에 대한 저자의 계획이 담긴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전현우의 이전 저서인 '메가시티 서울 철도'(2020)와 '납치된 도시에서 길 찾기'(2022)는 한국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외톨이 역을 떠나며'는 기후 변화 시대의 교통과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그의 '철도 삼부작' 중 마지막 권이다.

### 이강소 작가 50여년 작업세계 한자리에

롯데문화재단, 이강소 개인전 개최 회화, 조각, 영상 등 150여점 선봬

롯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롯데뮤지엄은 이강소 개인전 '일어나고 사라지는(Emergence and Dissolution)'을 오는 8월 21일부터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실험미술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강소의 작업을 조망하는 자리다. 회화와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150여 점을 선보이며 작가의 작업 세계

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조각 작품 50여 점을 함께 전시해 회화 중심으로 알려진 작가의 작업 영역을 폭넓게 소개한다.

이강소는 1970년대 한국 실험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회화와 조각, 설치, 퍼포먼스,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해왔다. 작품을 결과물이 아닌 행위와 시간, 공간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이어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초기

작업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전시에 앞서 얼리버드 티켓도 판매한다. 슈퍼 얼리버드 티켓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성인 기준 1만 원(50% 할인)에 판매되며, 전시 개막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얼리버드 티켓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만2천 원(40% 할인)에 판매되며 전시 기간 내 관람이 가능하다.

티켓은 롯데뮤지엄 공식 홈페이지와 놀티켓, 카카오톡 예약하기·선물하기, 네이버 예약에서 예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美의회서 “중국, 유엔 평화유지활동 악용해 정보수집” 주장  
▲미중러·아세안, 호르무즈 겨냥 ‘해협 통과권 보장’ 성명 추진

/사진 뉴시스

▲EU,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조건부 승인…“영화 배급 경쟁 우려 해소”  
▲中, 대만해협서 이틀간 싩탄사격 훈련…푸젠 연안 항행 통제

▲러, 영유권 분쟁지역 쿠릴열도서 대함미사일 훈련…“日 견제”  
▲6개월째 교착…첼렌스키, 내주 방미 검토·美특사와





다이소  
‘리얼필드’로  
소포장·저가 주목  
L1



Lif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반기 영업이익  
1조 돌파  
L2



# 완만한 곡선길 따라 겹겹이 채워진 녹음 단지 안에 들어온 숲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단지 입구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양옆으로 소나무와 관목, 꽃을 심어 녹지의 밀도를 높였다. /성채리 수습기자

## 아파트의 미학(美學)

###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서해선 시흥대야역의 길게 이어진 2번 출구를 따라 지상으로 나오면 길 건너편에 들어선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가 한눈에 들어온다. 단지 상가 외벽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과 상가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다. 7월 초 입주를 시작한 단지 안팎은 굿은 날씨에도 분주했다. 이삿짐 차량과 입주 청소 차량이 단지 진입로를 오갔다. 일부 차량은 단지 내 차도와 보행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대곡역에서 서해선으로 환승하거나, 연신내역에서 GTX-A를 이용해 대곡역까지 이동한 뒤 서해선으로 갈아타면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에 도착한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일원에 들어선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는 ‘시흥대야3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다. DL이앤씨가 시공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 동, 총 1026가구 규모다. 기존 영남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 대단지로, 신축 공급이 많지 않았던 대야동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다.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선 시흥대야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다. 서해선을 통해 부천과 광명, 김포공항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사당역과 강남, 판교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운행된다. 시흥나들목(IC)과 서해안로, 제2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차량 이동이 비교적 편리하다.

단지 인근 교육시설은 대야초와 은계초, 은계중, 은행고 등이 있다.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흥과학고등학교도 들어선다. 대형마트와 병원, 영화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있고 은계숲생태공원과 밤비천물길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깝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재건축 대단지 광역 교통망에 학교·편의시설 갖춰 녹지 밀도 높은 정원형 조정 조성

보행로 곡선 활용해 산책동선 연결 수목과 어우러진 가장자리 산책로 불규칙한 수목으로 녹지밀도 높여

곡선형 계단으로 이어진 분수정원 풍경 한눈에 보이는 ‘드포엠카페’ 녹지와 어우러진 야외 운동공간도

피트니스센터와 남녀편백사우나, 스카린골프장, 라운지 카페, 유아 실내놀이터,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등을 갖췄다. 분수정원과 연계된 ‘그린카페’를 비롯해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용시설도 있다.

외벽에는 DL이앤씨가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기술은 공동주택 외벽의 콘크리트가 물과 염화물 등 외부 열화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콘크리트의 내구수명을 기존 도장 기술보다 5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지 안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지피식물이 촘촘하게 심겨 있다. 정원 요소를 반듯하게 정렬하기보다 다양한 수종을 불규칙하게 배치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을 연상시켜 녹지의 밀도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정원은 노타나무와 연필향나무, 물푸레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로 꾸며졌다. 육생비오톱에는 메타세쿼이아와 산수유,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동 사이 보행로에 안전한 곡선을 활용한 점도 특징이다. 짙은색 벽돌과 서로 다

른 색상의 보도블록을 사용해 길에 변화를 줬으며, 자연석과 낮은 조명을 곳곳에 뒀다. 정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단지 안을 오가는 일상적인 동선이 산책처럼 느껴진다.

단지 가장자리에는 아파트 안팎의 경계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진다. 큰 나무가 만든 그늘과 새로 심은 수목이 어우러져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줄이는 녹지 완충공간 역할을 한다.

한편에는 분수정원과 함께 입주민 휴게공간인 ‘드포엠카페’가 조성됐다. ‘드포엠(dePOEM)’은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을 뜻하는 ‘de’에 시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POEM’을 결합한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정 브랜드다.

카페는 검은색 철제 구조와 짙은 유리로 이뤄졌다. 주변 풍경이 유리 벽면에 비쳐 건물이 정원 속에 스며든 모습이다. 경사진 지붕과 반투명 천장은 온실을 연상시킨다.

건물 둘레에는 나무 데크를 깔고 크기가 다른 자연석과 자갈을 배치했다. 굽은 길과 계단을 따라 오르면 카페와 분수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에 닿는다. 입체적인 조경은 숲속 비밀 공간을 찾아가는 듯한 경험을 만든다. 울창한 수목 사이로 보행로가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지는 구조 또한 깊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인조잔디를 조성한 야외 운동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됐다. 부지 한가운데 나무와 관목을 심고 운동기구를 양쪽으로 나눠 배치한 구조가 눈에 띈다. 수목을 공간의 중심축으로 삼아 녹지와 운동시설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저층부와 연결된 형태로 조성됐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잔디와 초화류가 커뮤니티센터 입구까지 이어지며 회색 석재 건물에 생기를 더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단지 내 분수정원. 높낮이가 다른 화단과 곡선형 계단을 활용해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2 기존 큰 나무와 새로 심은 수목이 어우러진 단지 외곽 산책로.

3 크고 작은 나무와 지피식물을 촘촘히 심어 녹지 밀도를 높인 단지 내 숲길 보행로.

## 메트로 한줄뉴스



▲‘AG 4연속 금메달 도전’ 이민성호, 사우디·카타르와 D조서 경쟁  
▲송성문, 9회 대타 출전해 1타수 무안타…샌디에이고는 6-7 석패 /사진 뉴시스

▲‘첫 AG 우승 도전’ 신상우호 여자축구, 북한·방글라데시·미얀마와 경쟁  
▲탕웨이 둘째 아들 낳았다 “네 식구 여행이 시작됐다”

▲연상호 ‘기생수’ 시리즈 또 만든다…이번엔 한·일 합작  
▲유네스코 “日 사도광산 강제 동원 포함 ‘전체역사’ 명시하라”